



내년 국비 8조원 시대

정부안서 7조 6464억 달성

포스트코로나 대비 한국판 뉴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중점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본격화

충남도가 정부예산 8조 원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국가 재정 투자 방향에 맞춘 전략적 국비 확보 활동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대 국비 확보 성과를 올렸다.

도에 따르면 양승조 지사는 지난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3일자로 국회에 제출되는 2021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7조 6464억 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액은 2020년 정부예산안 6조 9528억 원보다 6936억 원(10%)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7조 1481억 원에 비해서는 4983억 원(7%) 많은 규모다.

도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과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주력해왔다.

주요 신규 사업에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116억 원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3억 원 등이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이다. 중부권에서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선정됐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마련’을 위해 그린뉴딜 및 에너지 전환, 녹색 생태계 복원 및 문화·관광 진흥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활동을 폈다.

신규 사업으로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74억 원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 7억 원 ▲해양바이오 수소실증 플랜트 고도화 연구 36억 원 등을 반영시켰다.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는 그린 뉴딜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뉴딜, R&D와 기업 지원 분야 국비도 대거 확보하며 ‘활력이 넘치는 경제’ 추진 기반을 다진다.

주요 신규 반영 사업 및 확보액은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 25억 원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13억 원 등이다.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은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집적지구를 강소특구로 확대·지정받아 미래형 ICT 융복합 자동차 부품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건설’ 분야에서는 ▲보령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100억 원 ▲아산인주(3공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8억 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고,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 실현’ 분야 계속 사업에는 ▲생활 SOC 복합화 256억 원 ▲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 공모 20억 원 등이 담겼다.

도는 앞으로 국회 심사 시 신규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5억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성능평가 기반구축 37억 원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15억 원 등을 꼽았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등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이들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 방침이다.

/예산담당관 041-635-3177



격렬비열도, 365일 실시간으로 본다

충남도는 서해안 대표 영해 기점인 태안군 격렬비열도를 365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영상 송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북격렬비도에 설치한 파노라마 카메라를 통해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의 실시간 모습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실시간 영상은 충남도청 홈페이지와 도 해양수산국·유류피해극복기념관(태안)의 별도 모니터를 통해 송출 중이다.

작은 사진은 충남도청 직원이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격렬비열도 실시간영상화면을 보고 있다.

충남도는 서해안 대표 영해 기점인 태안군 격렬비열도를 365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영상 송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북격렬비도에 설치한 파노라마 카메라를 통해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의 실시간 모습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실시간 영상은 충남도청 홈페이지와 도 해양수산국·유류피해극복기념관(태안)의 별도 모니터를 통해 송출 중이다. 작은 사진은 충남도청 직원이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격렬비열도 실시간영상화면을 보고 있다. /해운항만과 041-635-4826

한국철도 전산센터 충남 이전... 새 시대 연다

도·코레일·아산시, 투자협약

KTX 천안아산역 인근 2023년까지

375억 투입해 전산센터 신축·이전

철도 관련 데이터 통합 관리·분석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코레일 전산센터를 유치했다.

우리나라 철도 관련 모든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게 될 이 센터에는 150명 이상의 인력이 상주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8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오세현 아산시장과 ‘한국철도 전산센터 신축’ 투자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3년까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한국철도 전산센터를 신축·이전한다.

한국철도 전산센터 신축·이전 사업은 현 서울 전산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 확대·안전성 강화 등 4차 산업혁명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신축 한국철도 전산센터는 1320㎡의 부지에 지상 5층, 건축 연면적 6600㎡ 규모다.

코레일은 2023년 6월까지 건물 신축 249억 원, 시스템 구축 및 통신장비 설치 126억 원 등 총 3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 센터에는 코레일 직원 117명, 관제인력 26명, 협력사 직원 10명 이상 등 15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주요 기능은 빅데이터 기반 ‘한국철도형 데이터 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승차권 예매·교통카드·관광·교통 안내·물류·철도 시설물 IoT 센서 등 철도 관련 전 데이터 통합 관리·분석이다.

현 서울 전산센터는 지진, 침수 등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민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센터로 전환한다.

도와 아산시는 코레일의 한국철도 전산센터 신축·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건설정책과 041-635-4629

충남의 원칙과 현실감각은 BTS와 닮았다

도정 톨아보기

코로나시대 우울감 양극화 커져

도, 전국최초 양극화조례 제정나서

온라인 외교로 외자 유치 선전

코로나 우울 날릴 최고의 선물

‘원칙은 서생처럼 지키되, 실천은 상인처럼 하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민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인즉, 국민만 바라보고 정진하라는 것이다.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적 위기 속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원칙과 현실이 출렁이는 혼돈의 시대다. 코로나19로 양극화의 간격도 벌어지고 있다. 문만 열어 놓은 수많은

은 식당과 길가의 소상공인들의 한숨, 들녘에서 들려오는 농민의 소리 없는 탄식, 멈춘 일상으로 무기력과 우울한 나날은 지난하다.

원칙은 생명수처럼 지키라 했다. 원칙은 국민 우선주의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양극화 해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민의 문제의식이다. 소득양극화 해소를 비롯한 노동, 기업, 지역, 교육 양극화 등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아우른다. 지방정부에서 나선 것만으로도 크나큰 의미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8조 원을 집중 투입한다. 전국 처음 양극화 전담부서도 만들었다. 방침은 공정사회 실현이다.

실천은 상인처럼 행동한다. 충남의 코로나19 대처법은 비대면 세일즈 지방외교다. 세계가 꽉 막힌 하늘길을 뚫어가며 언택트 지방외교를 펼친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코로나 진

단키트를 수출한다. 한국 케이팝과 등학교 문화 교류와 경제교류도 약속했다. 7월에는 사상 첫 중국 라오닝성과 온라인 지방외교를 전개했다. 비대면 정갈관리 개척이다. 경제·관광 교류·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했다. 온라인 외자유치는 백미다. 올 4월에는 전국 최초로 노르웨이 오슬로와 온라인 화상으로 29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또 온라인 화상무역으로 아세안 지역 수출길을 모색했다. 베트남과는 우리 수산물의 온라인 소핑몰 입점 협약도 맺었다. 지난해 외자유치는 비수도권 가운데 단연 1위(17억 달러)다.

그림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올랐다. 곡명은 ‘다이너마이트’. 펑크와 소울로 도시를 빛냈다. 실천은 BTS처럼. 인생은 노력하는 자에게 미소짓는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道 결혼식 위약금 분쟁 관련 중재

전국 최초 소비자분쟁조정회의 운영 변호사, 소비자업무 전문가 등 구성

충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비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면서 중재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올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 상담은 535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충남도민이 접수한 소비자상담은 273건으로, 5.1%를 차지했다.

우선 도 소비자생활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소비자가 도 소비자생활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센터의 전문상담

사를 통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변호사, 소비자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충남도 소비자분쟁조정회의’를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최소 월 2회 결혼식과 관련한 소비자분쟁 사건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피해 중재신청은 도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도민이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도 소비생활센터(☎041-635-2271 또는 이메일 yiminhwa@korea.kr)로 예식계약서와 피해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경제정책과 041-4284-4150

30년 숙원 보령신항만 건설 첫 단추

준설토투기장 타당성재조사 통과
도, 내년 국비 100억원 확보
천북면 학성리 일원 841억 투입
향후 고용 증가, 경제활성화 기대



30년 숙원사업인 충남 보령(신)항만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8월 26일 보령(신)항만 예정지에 준설토투기장을 건설하는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은 서해안 보령항로를 이용하는 대형 선박 안전을 위해 보령항로 준설토를 보령신항만 예정부지에 매립해 향후 신항만의 항만시설용 부지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결과 경제성(B/C)은 2.68(1.0이상이면 경제성 유효), 정책성 평가(AHP평가)에서는 0.716으로 기준인 0.5를 넘었다.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은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일원 41만 9000㎡ 규모로 준설토투기장을 건설하

는 것으로, 2023년 말 완공이 목표이다. 사업비는 841억 원이다. 이번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의 타당성재조사 통과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523억 원이 투입되는 보령항로의 준설토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484억 원이 투입되는 관리부두 축조사업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로써 약 200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항만 신규사업 등이 보령지역에 발주되면 지역 고용 증가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은 충남도민과 보령시민의 숙원 사업이었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보령시 무창포 어촌 방문 당시 건의에 사업검토를 시작으로, 1997년 국가계획인 '신항만 예정지역지정 및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보령신항이 반영 고시됐으나, IMF 구제금융 영향 등으로 사업추진이 전면 보류됐다. 한편 충남도는 내년 국비로 보령신항만 준설토투기장 건설 관련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해운항만과 041-635-4823

충남 2030 문화비전 슬로건

15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충남도는 9월 1-15일 충남 2030 문화비전 슬로건 공모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문화비전 슬로건 후보는 ▲문화로 더 행복한 충남, 문화로 강한 충남 ▲문화로 도민에게 행복을, 품격 있는 충남을 ▲함께하는 문화, 더 행복한 충남 ▲함께하는 문화, 상상하는 문화, 품격 있는 문화충남 ▲도민과 함께 만드는 신한류 문화발전소 충남 ▲문화로 함께 만드는 품격 높은 충남 등이다. 또 참여자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

해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 문화관광, 건강체육 등 5개 분야를 포괄하는 '충남의 10년 후 미래상' 슬로건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제안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 및 의견 수렴은 도 공식 사회관계망(SNS)에 연결된 의견 수렴 페이지를 통해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며, 당첨자는 17일 도 공식 사회관계망을 통해 발표한다. /문화정책과 041-635-2417

도정만평

설인호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00원 결정

도·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적용
충남도의 내년 생활임금액이 시급 1만 200원으로 확정됐다.

충남도는 지난 2일 도청에서 '2020년 충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금액을 시급 1만 20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 50원보다 150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0원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1800원이 된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3

청양 김치공장 집단감염 현장 점검

김치 50톤 전량, 폐기 조치

충남 청양에 위치한 김치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지난 3일 현장 점검을 했다. 청양 김치공장에서는 지난 2일 첫

환자를 비롯해 4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3일에는 16명의 확진자가 발생, 총 확진자 수는 20명이다. 이날 양 지사는 청양군 선별진료소와 청양군보건의료원 상황실, 김치공장 등을 찾아 방역 상황 등을 청취했다.

도는 김치공장 밀접 접촉 직원 등 134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독 후 폐쇄 조치를 마쳤으며, 즉각대응팀 10명을 보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김치공장은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생산한 50톤의 김치를 전량 판매 중단 및 회수, 폐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건정책과 041-635-4296

흩어진 독립군 모아 대한군정서 재건

청산리전투 100주년
김좌진 장군 서거 90주년 기회

⑬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다

중국·러시아 국경지역 밀산·집결
자유시 아닌 북만주 영안현행
자금모집 집중·신민부조직 착수

김좌진은 청산리 대첩 후 대한군정서군을 이끌고 1920년 11월 중국과 러시아 국경 지역인 밀산(密山)으로 이동했다. 청산리대첩에 승리하기는 했으나 일본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고 간도참변으로 무장투쟁의 기반인 한인사회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대한군정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독립군단체들도 밀산으로 이동했다. 내전 중인 러시아 소비에트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밀산에 집결한 독립군단체들은 러시아령 이만을 거쳐 후 러시아 원동공화국 자유시로 이동했다. 그러나 김좌진은 자유시로의 이동에 반대했다. 원동공화국이 독립군부대들이 자유시로 들어오기 전 무장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좌진은 무장해제뿐만 아니라 독립군들이 러시아 내전에 참여하는 것도 부정적이었다. 러시아 내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에트정부가 독립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좌진은 자유시로 이동하지 않고 북만주 영안현(寧安縣)으로 돌아왔다. 김좌진의 판단은 옳았다. 자유시로 이동한 독립군들은 1921년 6월 러시아 적군(赤軍)에게 무장해제를 당했고,

최소 100명에서 최대 500여 명에 이르는 독립군들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자유시 참변을 당했다. 김좌진은 대한군정서를 재건해야 했다. 독립군들은 자유시 참변 후 작은 무리를 지어 북만주 지역으로 돌아온 데다 각지에 흩어져 있어 연락되지 않고 있었다.

김좌진은 1921년 8월 이후 밀산과 영안을 중심으로 흩어진 독립군을 모아 대한군정서를 재건했다. 따라서 김좌진은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을 추진했다. 마침내 1922년 8월 통합운동이 결실을 보아 대한군정서·의군부·독립단·광복단·국민회·신민단·의민단·대진단 등을 중심으로 대한독립군단이 조직되었다. 대한독립군단에 참여한 독립군단체들은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었다. 따라서 무기만 갖춰진다면 항일투쟁을 벌일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김좌진은 대한독립군단의 군사부위원장 겸 총사령관으로 군사부문의 책임을 맡았다. 김좌진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자금모집이었다. 무기를 구입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금모집은 원활하지 못했다. 간도참변을 겪은 동포들은 일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좌진은 북만주 지역에서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인자치조직과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여기고 신민부 조직에 착수했다. /이성우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자유시참변지(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출처 독립기념관)



독립유공자 예우에 최선 다하는 충절의 고장 충남

(버스비무료·의료비 경감 등)

글 쓰는 순서

- ①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 ② 충남 3대 무상교육
- ③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 ④ 탈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폐쇄)
- ⑤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
- ⑥ 역간척, 해양정원 조성
- ⑦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등 해양新산업
- ⑧ 4대 사회보험료 소상공인 지원
- ⑨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
- ⑩ 공유립 밀원수 조성
- ⑪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 ⑫ 여성권익보호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버스 승차 시 충남형 교통카드를 단말장치에 대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충남도청 관계자들이 도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 이일남(96) 애국지사를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한 후 절을 올리고 있다.

충남이 최초인 선도사업

⑪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충남도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복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내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이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비 지원 대상범위와 의료기관도 넓혔다. 이와 함께 충남 대표 독립운동가의 거리와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등 보훈정신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매년 줄어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유족에 대한 배려방안도 모색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충남형 선도모델로 자리잡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정책의 추진 배경과 성과, 계획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전국서 두번째 많은 독립운동가 배출

충남은 김좌진 장군,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동녕 선생, 한용운 선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다. 충남 독립운동가는 1295명으로, 전국 1만 5825명의 8.2%로 전국 시도중 2번째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다

현재 독립유공자(유족)에 대한 지원은 유공자 본인 및 보훈처에서 수권자(1명)로 등록된 유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보훈처에 등록이 되지 않은 나머지 유족, 독립유공자 손자녀 이후 유족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방안

을 수립,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예우를 강화한 것이다.

우선 의료비 지원 확대, 버스요금 무료 혜택 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확대해 예우 증진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독립운동 기념사업(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독립운동가 추모선양 등), 독립운동 정신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사업(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나라꽃 무궁화 선양사업 등) 등도 진행한다.

위문 및 의료비·버스비 등 지원 확대

도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방안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훈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내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는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충남 버스비 무료화 사업의 대상이 기존 75세 이상 도민(75세 이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 포함)에서 지난 7월부터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자)까지 확대됐다.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교통정책과 관련해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상을 확대,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을 수권자(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지정병원은 도내에서 대전지역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대상범위와 의료기관을 넓혀 의료비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충남, 독립운동 시작된 출발점

일제 탄압 속 선조들 독립운동

도 독립유공자 예우방안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유족 버스비 무료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세심한 배려

충남형 유공자·유족 버스비 무료

독립운동 숭고한 희생과 헌신

역사의식·보훈정신 되새겨야 해

119 이송예약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에 대해 입원, 수술, 응급상황 등 맞춤형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사전에 독립유공자 정보만 119시스템에 제공·등록해두면 된다.

올해부터 위문품 금액을 상향하고, 위문 활동을 기존 3·1절, 광복절 2회에서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추가, 3회로 확대했다.

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주택 풍수해보험도 지원한다.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독립유공자 및 후손 약 200명을 초청해 덕산리솜스파캐슬에서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10

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

도민 서명운동으로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도는 독립유공자들의 독립운동 정신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콘텐츠를 개발·운영한다.

충남 내포신도시 충남충예공원 및 보훈공원 일대가 역사의식과 보훈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대표 현충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4월 충남충예공원에는 충남 대표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조성됐다. 이곳에는 김좌진·유관순·윤봉길·한용운·이동녕 등 독립운동가 5인의 조형물이 제작·설치됐다. 또 지난해에는 항일독립운동여성상 '혁명전야'를 건립했다.

또 보훈정신 확산을 위해 충남보훈공원내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소나무를 식재하였다.

무엇보다 지난해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 등급 건국훈장인 대한민국장(1등급)을 추서했다. 그동안 도는 유관순 열사 서훈(3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도민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중점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복지 확대를 강화하고, 매년 줄어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방안을 확대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배려방안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갈등의 시대 속 대통합

대한민국, 3대 위기를 말하다

⑤균형의 힘으로

의사협회가 정부와 첨예하게 맞서며 갈등을 빚고 있다.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공포 속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책임감 없이 배부른 사람들끼리 벌이고 있는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허탈하고 슬퍼진다. 특히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된 투표결과를 재투표로 결과를 뒤집은 '대전협'의 행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하다.

취년쿨은 오른쪽으로, 등나무 녀쿨은 왼쪽으로 감아 오른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올라가는 두 나무에서 유래한 단어가 참 같, 등나무 등, 갈등(葛藤)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극심한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한 몸에 붙었

어도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귀와 두 눈은 한쪽이 병이 나면 남은 한 쪽이 두 배의 능력을 발휘하여 보완한다고 한다. 손이나 발처럼 서로 만나 어루만지는 관계가 아니라도 하나의 완전체를 위하여 기꺼이 배려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물론 왼쪽 오른쪽 다른 위치에 있으므로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다를 수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의 완전체를 위한 자기희생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도 한 핏줄 한 민족 간의 공동체를 위한 소통과 배려로 역사사지의 아름다운 대통합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얼마 전 아이 셋을 낳아 키우는 한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조부모와 함께 삼대가 모여 사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한다. 대가족 속에서 자란 그녀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 보였다. 그런 그녀에게 요즘 걱정이 하나 있다고 했다. 자신의 아이들이 크면 몇 명의 노인을 책임지게 될까 하는 염려였다. 자기부모 부양도 버거

운 상황에서 남의 부모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세대별 인구의 균형이 무너진 사회적 현상을 우려하는 것 같았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84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00만여 명을 넘어 이미 초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반면 만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646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28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가족의 형태도 4인 가구가 사라지고 1인이나 2인가구의 대체를 전망하기도 했다.

장수는 축복이다. 그러나 노인 빈곤이 심화되는 현실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 사회적 비극일 수도 있다. 일자리를 놓고 빛어지는 세대 간 갈등이 그렇고 부양 의무를 져야 하는 젊은 세대와의 반목이 그렇다. 얼마 전 한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사망 시기가 언제쯤이면 좋겠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상당수가 60대로 답했다고 한다. 부모의 60대는 정년 즈음이다. 이는 고

령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살펴보면 어린이와 2040세대 그리고 은퇴 세대의 삶의 질과 평등 구현이 골자이다. 그 중 현재 7세 이하 아동에게 해당되는 아동수당 정책이 대표적이다. 2007년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위원이 최초 법안을 발의하여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끈질기게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다듬어 만든 정책이다. 부디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의 모책(妙策)으로 갈등이 아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선한 균형의 힘이 발휘되기 바란다. 취년쿨과 등나무 녀쿨도 왼쪽 오른쪽을 넘어 결국 햇볕을 향해 뻗는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민수영 시인, 칼럼니스트



도, 긴급경영자금 1000억 추가 지원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석명절 특별자금 200억 원 등
긴급자금 2월부터 네 번째 지원**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자금별 금액은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제조업 200억 원, 기술혁신형 100억 원) ▲추석명절 특별자금 200억 원 ▲소상공인자금 500억 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장기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제조 관련 중소기업이다.

또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다.

다만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3억 원 ▲추석명절 특별자금 2억 원 ▲소상공인자금 5000만 원이다.

상환조건은 모두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을 한다.

소상공인자금 보증수수료는 지난

1·2·3차 긴급자금처럼 기존 0.8%에서 0.3%p 낮춘 0.5%이다.

신청은 제조업 경영안정자금과 추석명절 특별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및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각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442),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기업과 041-635-2223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

**콘텐츠·지식 서비스 등 기업 대상
14일까지 접수... 10개사 선정**

충남도가 서비스산업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이 로드맵은 콘텐츠, 지식 서비스, 헬스케어 등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수출 상품을 분석해 타깃 시장 선정 및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수출 경험이 부족한 서비스 기업을 위해 대표 바이어군을 발굴

하고, 수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지난해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미만인 도내 서비스 산업 중소기업이다.

도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총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14일까지 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http://cntrade.chungnam.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제통상과 041-635-3362

호우피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수수료 전액... 50% 감면 혜택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

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도민이다.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1588-

7704)로 신청하면 된다.

호우피해 도민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주거용 건물 피해(전파, 유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이 감면된다.

그 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가 감면된다.

/토지관리과 041-635-2862

코로나 뚫고 지방외교 영역 넓힌다

**도·인니 서자바주, 교류체결 합의
스마트시티 조성 등 교류협력**

충남도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는 오는 10월 우호교류협력 관계를 맺기로 최종 합의했다.

도는 지난 8월 27일 '충남 글로벌 채널(화상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온라인으로 실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서자바주는 오는 10월 경, 양승조 지사와 리디안 카밀 서자바주지사 간 교류의향(LOI) 체결을 약속했다.

도와 서자바주는 상호 교류협력 주요 안건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 ▲스마트시티 ▲한국 케이팍고등학교 연계 문화 교류 ▲대학 간 인

적·기술 교류 ▲공무원 교류 방안 등 5개를 제안, 향후 교류협력 핵심 축으로 삼기로 했다.

교류의향 체결 이후에는 양 지역 주민과 기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협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도와 서자바주는 지난 2017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동아시아지방정부 회합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쪽에 위치한 서자바주는 충남의 4.5배인 3만 913797㎡의 면적에 인구는 4900만 명에 달하는 광역주다. 수도 자카르타와 연결된 교통의 요지이며, 최근 신공항 건설을 완료하는 등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제·문화의 중심지다.

/국제통상과 041-635-2254

충남도 수출중소기업 판로 개척

내년 2월까지 온라인 전시회 운영

충남도가 온라인 전시회를 통한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지 출장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비대면 홍보사업인 'Trade Korea 온라인 전시회'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Trade Korea 홈페이지에 충남 우수상품관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도내 30개

중소기업은 우수제품을 해당 홈페이지에 업로드, 전 세계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기업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그를 제작 지원하고, 무역실무 상담과 계약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40개사 이상의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을 진행, 이 중 10개사 이상 유효바이어를 발굴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http://cntrade.chungnam.go.kr>)을 통해 9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제통상과 041-635-2252

소상공인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25일까지 대학생, 일반인 등 참가

충남경제진흥원(원장 오광욱)은 25일까지 '소상공인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충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착한경제(착한소비-착한판매)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우리동네 상가골목, 시장골목 등 활성화 아이디어 ▲기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이다.

사행시 이벤트도 진행된다.

주제어는 '소상공인'으로 재치있

고, 공감되는 사행시를 써서 참가하면 30명을 선정해 소정의 기프티콘 등을 제공한다.

공모전 신청은 온라인(<http://sbiz.cepa.or.kr/2020idea.do>)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보부상폴센터(☎ 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 기간은 9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대학생, 일반인,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충남경제진흥원 041-539-4521

지방보조금 알고쓰기
중요재산 임의처분 금지편

갑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친구한테 빌려야 가야겠다!

을 무슨 일인가? 여길 다 찾아오고~

갑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빌려줄 수 있나 물어보려고 왔어~

을 나도 자금이 없어서.. 아! 너희 회사 건물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겠네!~

갑 보조금으로 산 건물인데 그래도 괜찮을까?

을 어차피 올해도 얼마 안 남았으니 괜찮겠지~

갑 그럼 회사 건물 담보로 대출 받아야겠다!

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임대·양도·담보하여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은 중요재산 임의 처분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입니다.

갑 안되는 게 어딤!! 바로 감아버리면 모르겠지?

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과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1800만 달러 온라인 수출 상담 성과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화상 상담
55만 달러 즉석 수출 계약
김 등 해양·수산 기업 8곳 참가

해양·수산 기업 총 8개사가 참가했다. 독립 국가 연합(CIS)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수출 상담회는 비대면 방식인 화상으로 진행됐다.

충남도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화상 수출 상담회를 갖고 3개 업체, 55만 달러 수출 계약을 달성했다.

도는 비대면 상담의 단점을 보완하고,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 기업 8개사의 제품 및 현지어로 번역한 설명 자료를 현지 바이어에게 미리 보내 직접 보고 경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충남테크노파크 충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와 지난 1일 보령 웨스토피아에서 화상 수출 상담회를 열고, 183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8개 업체가 총 183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중소기업에 수출 다변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명품김'은 러시아 바이어와 30만 달러, '씨앤비코스메틱'과 '다인내추럴'은 각각 카자흐스탄 바이어와 15만 달러, 1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날 상담회에는 조미김, 김스낵, 키조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도내

한편 도는 해외 바이어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출용 제품 개발 및 베트남



러시아 기업과 화상으로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온라인 입점 판매 지원 사업 등 도내 해양·수산 기업의 유럽·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어촌산업과 041-635-4843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노동자 이사제 첫 도입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박병희)은 노동자 대표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자 이사제'를 도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4개 의료원 등 6개 기관은 올해 하반기 노동자 이사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지난 8월 27일 직원 투표를 통해 경영기획부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조(사진) 씨를 첫 노동자 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0명 미만 공공기관은 자율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강 신임 이사는 비상임 무보수이지만, 이사회에서 사업 계획과 예산, 조직과 정원, 중요 규정 제·개정 등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노동자 이사제 도입 의무 기관은 아니지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도입키로 결정하고, 정관 개정, 이사 후보자 공개 모집 및 선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이사회 의결, 도지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7일 노동자 이사 임명까지 마쳤다.

도는 지난 3월 도의회 안장현 의원(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의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시행 중이다.

노동자 이사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041-840-5013

이 조례에 따르면, 충남도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정원이 100명이 넘는

수도권 대학생 등지 '충남서울학사관' 개관

서울 오류동... 월 20~25만원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충남 출신 학생을 위한 기숙사인 충남서울학사관이 문을 열었다.



서울 충남학사 전경

(재)충남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15년 충남서울학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18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8월 31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생 모집을 진행해 총 196명(남50명, 여146명)의 학생들이 지원, 지난 8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사를 시작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cninja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충남인재육성재단02-6344-7800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충남서울학사관은 대지면적 2149㎡, 연면적 6374㎡, 지하2층, 지상12층 규모로 학습시설 및 입사생의 편의증진을 위한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기숙사비는 월 20~25만원이며, 1일 3식을 제공한다.

충남서울학사관은 지난 7월부터 입

아산탕정2지구 개발 본격화

도시개발구역 지정·2027년 완공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

접한 삼성디스플레이산업단지 및 천안아산 연구개발(R&D) 집적지구 등과 연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형성된다.

충남도는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국토교통부에 최종 고시, 사업 착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저렴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통해 R&D 및 첨단산업 우수 인력 유치를 지원하고, '산업-주거-연구'가 융합된 충남 북부권 성장거점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아산 탕정2지구는 지난 7월 23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이어 8월 6일 중앙도시수용위원회 심의를 각각 통과했다.

사업비 약 1조 1266억 원 투입으로 생산유발효과 2조 534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202억 원, 총 3조 3551억 원의 파급효과가 발생되며, 취업유발효과로는 약 1만 6336명 등이 예상된다.

도는 도시개발을 위한 첫 단추인 구역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3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지구내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완료가 목표이다.

사업규모는 약 357만㎡(수용인구 약 4만 6500명)이며, 사업지구와 인

/건설정책과 635-4618

가버린 시대, 가버린 밥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49)

맷돌에 보리를 갈아 지은 밥
1950년대 가득했던 '보리갈밥'
언어로 앞 세대 삶·역사 기억

'보리갈밥'도 들어 있다.

두 분은 내 공책을 들여다보며 옛날이야기를 하신다. 젊음이 싱그럽던 1950년대 이야기가 한 보파리 팔려 나온다.

1950년대 가득했던 보리갈밥은 이미 사라졌다. 절구통에 찧던 보리방아는 방앗간에 사라졌다. 1970년대의 혼분식 도시락 김사는 1980년대가 되기도 전에 사라졌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 출생자는 보리밥을 모르고, 쌀밥은 다시 국수며 빵에 밀렸다.

"갈밥이 된 중 알어?"

인터넷 바다를 항해한다. 잃어버린 충청말 하나 찾을 수 있을까. 바다의 구석을 뒤진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 물 한 모금 축이고, 충청도 사람들이 드나드는 카페에서 충청말의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신다. 그러다가 '갈밥'을 만났다. 충청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밥이란다. 나는 충청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 젊었을 땐 갈밥 징그럽게 먹었어. 방아 찧 보리밥허군 판판이여."

작은아버지가 머리를 흔든다. 작은어머니도 침을 튀긴다.

작은아버지와 20년, 그 세월 사이에 갈밥이 있다. 그리고 내 조카와 나 사이도 그렇다. 나에겐 가득한 추억이 조카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이 된다. 그것은 세대 차이를 넘어 세대를 이해할 수 없는 단절, 공감의 영역이 좁아진다는 것은 잊힘을 뜻한다.

"그게 맷돌이다 보리를 갈아서 해 먹던 밥이라 갈밥이여. 옛날이는 보리방아가 심드니까 보리를 가마솥이다 찧어. 그걸 말리든 곁곁데가 떨어져서 보리쌀이 되여. 그걸 솥이다 볶은 뒤 맷돌루 갈아서 보릿가루를 멥그런겨. 그걸 안쳐 밥을 허든 그게 보리갈밥이여."

가버린 시대는 앞 세대의 삶이다. 가버린 말은 앞 세대의 역사다. 앞 세대의 삶은 쌓여 새로운 미래의 자양분이 된다.

그러니까 보리를 맷돌에 갈아 지은 것이 갈밥이란다. 보릿가루로만 밥을 하면 입안이 깔깔했다. 그래서 보통은 방아 찧은 보리쌀을 먼저 안치고, 그 위에 보릿가루를 얹었다. 그러면 보리쌀과 보릿가루가 엉킨 밥이 되는데, 이를 보리갈밥이라 했다.

그래서 나는 '갈밥'을 정리한다. 언어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앞 세대의 삶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엔 아산에 갔다. 거기 작은택이 있다. 오랜 만에 찾아온 조카를 보자 두 분은 환하게 주름을 펼친다. 나는 공책을 들이민다. 내 공책 속엔 내가 모르는 충청말이 가득하다. 그것은 내 아버지며 할머니가 쓰던 말들이다.

돌아보면 세상이 참 변했다. 1960년대에 태어난 나는 갈밥을 모른다.



이명재
시인·충청언어연구소

'8·15 서울집회' 참석명단 제출 명령

참가자 모집자, 전세버스회사 등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 연장도

입자, 전세버스회사 등이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8·15 서울 도심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의료계 2차 총파업과 관련해서 엄격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8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8·15 서울 도심 집회 등에 대한 참가자 명단 제출 행정명령을 금일 12시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2차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도는 8월 31일까지 조치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9월 6일 24시까지 1주일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4108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할 수 있고,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모임, 식사제공 등은 금지한다.

도는 8·15 서울 도심 집회 전세버스 이용 참석자 명단(21대 444명)과 인근 지역 노출 추정자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들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다만 비대면 영상 예배 촬영 및 송출을 위한 인원은 20명 이내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집합을 허용한다.

이번 8·15 서울 도심 집회 명단 제출 행정명령 관련 대상자는 도내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인솔한 책

이와 함께 도는 8월 31일까지 조치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9월 6일 24시까지 1주일 연장키로 했다. /보건정책과 041-635-4303 /문화정책과 041-635-3812



전국 최초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도-한국서부발전 업무협약 체결
천안·서천 등 시범사업 대상 선정
고효율 조명 교체, 단열 개설팀

충남도는 한국서부발전과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 안심마을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안심마을은 도내 읍·면·동 내 모든 마을회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클루프 시공, 노후 보일러 교체 및 배관 청소, 고효율 조명 교체, 단열 개선,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찾아가는 기후위기 대응 교

육 등이다. 이번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맡아 추진하며, 올해 시범사업 대상으로는 공모를 거쳐 천안시 성거읍과 서천군 판교면 등 2개 읍·면 23개 마을을 선정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할 계획이다.

또 도는 조성이 완료되면 사업성과를 분석해 기후위기 안심마을 인증 현판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도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에서 한국서부발전과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후변화 취약지역 대상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행정적·제도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서부발전은 그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사업, 온실가스 감축성과 평가 등 제반 사업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부족한 점을 지속 보완·개선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2714

옹도, 등대지기가 그리운 외딴 섬

충청이 품은 섬 이야기
(22)태안 옹도

유인등대 위치... 1907년 불 밝혀
등대 올라가는 길 동백나무 군락
섬 정상 등대 고래 물줄기같이

충남 태안군 소속 옹도는 유인등대가 있는 섬이다. 태안군 신진도항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0.17km², 섬둘레 0.4km, 최고 높이 80m이다.

옹도는 향아리처럼 생겼다고 지어진 이름이다. 배를 타고서 바다에서 바라본 옹도는 꼭 고래처럼 생겼다. 섬의 정상에 있는 등대의 모습은 고래가 숨을 쉬면서 뿜어내는 물줄기처럼 보였다.

등대로 가는 길은 양쪽으로 계단이 있는데 오른쪽 시멘트 계단은 예전의 것이고, 왼쪽에 있는 나무로 된 계단은 새로 조성한 것이었다. 산책로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크 시설이다. 시멘트로 된 기존 계단 옆에는 물건 운반용 모노레일이 있다. 목재 계단을 타고 오르면 중간에 전망대 시설이 있다. '동백꽃섬터'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곳에는 동백꽃 조형물과 물가자미 조형물을 설치해 두었다.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태안 마도 보물선 발견과 시대적 배경 등의 안내문과 함께 출토 유물 사진 등이 실려 있다. 이어 길은 잔디와 함께 박석이 깔린 길로 바뀐다. 길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왼쪽의 동백숲을 통과하는 돌계단길과 오른쪽 잔

디와 박석이 깔린 길이 그것이다. 등대로 올라가는 길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비밀통로 같다. 동백나무가 무성하다.

박석이 깔린 길로 해서 올라가면 옆으로 화물용 모노레일과 평행을 이룬다. 모노레일은 등대 담벼락까지 이어지고 그 끝에는 수레가 있다. 등대에서 필요한 물자를 실어 나르는 데에 쓰이는 것 같다. 등대에 다다른 가파른 오르막길을 뺄곡하게 뒤덮은 동백나무 군락은 이곳이 남방계 식물의 영향권임을 말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옹도 등대는 1907년 5월 불을 밝혀서 100년이 지나갔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하얀 등탑은 섬의 왼쪽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고, 숙소 건물도 보인다. 등대를 제외하곤 살 만한 여건도 안 되는 그야말로 고독한 섬이 아닐 수 없다.

1973년 내부부의 도서지에 의하면 당시에 2가구 8명의 주민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지난 2007년 해수부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등대 16경' 중 하나로 옹도 등대를 꼽았고, 2013년 개방이 되면서 지금은 유람선을 타고 섬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충청남도에서 격렬비 열도와 함께 등대관리인이 사는 옹도 등대섬은 2013년까지 외부사람들이 출입을 금지했으나 지금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사랑을 받고 있는 섬이 되었다.

/이재연 목포과학대 섬해양연구원



충남도청 노사화합 행복한 직장만들기 캠페인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월 26일 '더 행복한 직장만들기' 캠페인을 가졌다. 캠페인 주요내용은 ▲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함께해요 ▲ 음주운전 안하기 ▲ 행정포털에 내 얼굴 올리기 ▲ 술잔 돌리지 않기 ▲ 갑질은 이제 그만 ▲ 배려하는 직장생활하기 등이다. 이날 충남노조는 일회용 마스크 및 마스크 끈 등 2000세트를 긴급 구입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 041-635-5815

"양봉농가 등록 신청하세요"

시군에 11월 30일까지 등록

충남도는 도내 양봉 농가에게 주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시군에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국내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기반조성과 육성에 기여할 '양봉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등록대상은 토종꿀벌이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두 가지 종을 혼합 사육하는 경우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이다.

등록을 하지 않고 벌꿀 등 양봉산물을 유통·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 양봉농가는 벌꿀을 채취·보관·가공하는 데 있어 외부 오

염원 유입이 차단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병해충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이나 장비, 소독약품을 구비하고, 사육장 주변에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축산과 041-635-4107



태안 옹도 전경

www.cnsu.ac.kr

충남유일 공립전문대!

충남도립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 1차 2020. 09. 23.(수) - 10. 13.(화)

수시 2차 2020. 11. 23.(월) - 12. 07.(월)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사길 55(벽천리90)
Tel. 041-635-6600



북한이탈주민 생활 안정 '맞손'

도, 1일 3개 민간단체·기관과 업무협약 조율 및 지원 총괄

충남도는 지난 1일 도청에서 국제로타리 3620지구, 삼성전자 B2B사업부 이노엠씨, 충남하나센터 등 3개 민간단체·기관과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정착 초기 북한이탈주민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지역사회에서 도내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나

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도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기관 간 협약 사항을 조율하고, 지원을 총괄한다.

국제로타리 3620지구는 전입 초기 북한이탈주민 1가구당 월 55만 원 후원 등 경제적인 지원을 펼친다.

또 국제로타리 100개 클럽 회원과 북한이탈주민 간 결연을 추진해 지역별 상호 교류, 문화 탐방,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업 증진 장학금 수여 등도 실시한다.

삼성전자 B2B사업부 이노엠씨는 생활 필수 가전제품 할인 제공, 품질 보

증 및 대상자 책임 전달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충남하나센터는 업무협약 전반의 행정 업무를 책임지며 도내 북한이탈주민과 민간기관·단체 간 상호 소통·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단체·기관 협력을 확대해 지역사회 통합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생활밀착형 정서 지원 ▲자립 강화를 위한 취업 지원 ▲가족 통합 서비스 ▲지역 특성 맞춤형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치행정과 041-635-3603



충남복지재단, 공모전 온라인 시상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은 지난 8월 26일 '충남도민 복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 확산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됐다.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우수상 1건, 장려상 3건 총 4건을 선정했다. /충남복지재단 041-330-2424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서비스 확대

도, 병원·재단 등 7개 기관과 협약

충남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도는 8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외의 주요 병원 등과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도와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국립공주병원, 아산충무병원, 미래한국병원, 남북하나재단, 충남

하나센터가 참여했다.

이로써 도내 북한이탈주민은 기존 단국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당진종합병원을 비롯한 총 8개 병원에서 의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협약 체결 기관·병원 간 전반적인 사안을 조율하며, 대상자를 발굴하고 시·군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 서비스 및 협약 의료기관을 홍보할 계획이다.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국립공

주병원, 아산충무병원, 미래한국병원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지원 사업을 비롯한 사회적 서비스를 적극 수행키로 했다.

남북하나재단은 도내 주요 병원을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전문 상담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충남하나센터는 의료 혜택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과 협약 병원 간 서비스를 연계하며 동행 지원, 협약 병원 홍보 등 협약 이행을 위한 행정적 업무를 맡는다.

/자치행정과 041-635-3603

충남발전협의회 유태식 회장 취임

충남발전협의회는 제8대 유태식 신임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사진> 유 회장은 제2·3대 금산군 의원, 제7·8대 충청남도 의원, 국제로타리 3680지구 총재 등을 역임했다.

유태식 신임회장은 "도정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더 따뜻한 충남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라고 취



임소감을 밝혔다.

충남발전협의회는 1990년 결성해 도민 화합을 이끌고 지역 발전 구심체 역할을 맡아 온 단체로 혁신도시 지정 등 도정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발전협의회 041-633-9097

탐지필름으로 불법 촬영 차단한다

도, 3400여 명 전 직원에게 배부

충남도가 전 직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부착용 휴대 탐지필름을 배부했다.

이번 배부는 불법 촬영 등 오프라인 성범죄로부터 개인이 직접 피해를 차단하고, 수사 점검하는 데 탐지필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탐지필름은 PVC 소재로 된 적색

투명한 필름으로, 개인이 지갑이나 스마트폰 케이스에 휴대하기 편리한 신용카드 크기로 제작됐다.

탐지필름을 부착한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곳을 플래시를 켜 상태로 동영상 촬영하면 숨겨진 카메라가 있을 경우 붉은색 스마트폰 촬영 화면상에 하얗게 반사되는 카메라 렌즈가 탐지된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8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역 강화

양돈농가 매주 1회 방역 점검

충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염원 유입차단과 현장방역에 고삐를 죄는다.

이번 방역 강화는 최근 강원도 춘천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이다.

도는 위험지역과의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돼지 생축과 분뇨·정액에 대한 반·출입 금지 지역을 당초 13개 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 파주·김포·연천·동두천·포천·양주, 강화)에서 15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추가로 지정된 지역은 강원도 춘천시와 인접한 경기도 가평군, 2개 시군이다.

또한 현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16억 원과 소독약품 구입비 2억 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하고, ▲모든 양돈농가 대상으로 매주 1회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독차량 12대를 투입, 양돈농가에 소독을 지원하고, 올해 지원된 양돈농가 울타리 156개소를 신속 설치할 계획이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1

충남도립대 자살예방 상담모델 가동

24시간 심리상담 전화 운영

충남도립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우울증 등 위기상태에 직면한 학생들의 심리개입을 위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자살예방 위기상담 시스템을 지원한다.

위기상담 시스템은 기존 대학이 추진하던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조직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예방 교육 ▲긴급상담 ▲적응지원 등 3단

계로 운영된다.

24시간 심리상담 전화 운영을 비롯해 자살위험성평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단계별 프로그램이 가동되며 위기평가에 따라 긴급대응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또 청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충남스마트쉽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위기개입팀'을 운영한다.

/충남도립대학교 041-635-6627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더 좋은 정책을 위해 **도민 삶의 질을** 측정합니다”

2020 충청남도 사회조사

2020. 8. 25.(화) ~ 9.17.(목)

조사기간 2020. 8. 25.(화) ~ 9.17.(목)
조사지역 충청남도 15개 시군
조사방법 면접조사 및 비대면 (자기기입식, 전화) 조사
조사대상 15,000 표본가구 (만15세 이상 가구원)

* 실시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 일반통계(제213009호)

공주 감사 소조삼세불 보물 승격

1617년 광해군 때 제작돼
임란 후 최대·최고 7존불상

공주 감사 소조삼세불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됐다. 복장에서 발견된 유물 등도 보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달 27일 ‘공주 감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76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또 불상 내 복장전적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공주 감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복장전적’이 보물 제2077호로 분리 지정됐다.

공주 감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은 흔히 볼 수 있는 3존불 형식이 아닌 7존불 형식으로, 1617년 광해군 9년에 행사(幸思) 등 9명의 조각승이 제작한 조선 후기 작품이다.

복장유물은 7건 263점이며,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제작 시기와 제작자 정보가 명확해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2076호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된 공주 감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진흙으로 만든 소조 불상은 평균 높이가 2.5m, 보살상은 평균 높이가 2m 이상으로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7존불 중 현존 최대작(最大作)이자 최고작(最高作)이다.

17세기 전반 대형 불상에 널리 적용된 소조 기법 작품 중 가장 빠른 사례에 속해 조선 후기 삼불상·사보살상 도상 및 제작 기법 연구 자료로서 가

치를 인정받는다. 불상은 역삼각형의 가름한 얼굴에 우뚝한 삼각형 콧날에서 행사 작품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장대하고 능률한 자세와 기백이 넘치는 표현 등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대형 불상들이 보이는 시대적 특징도 갖고 있다.

/문화유산과 041-635-2452

무령왕의 잔, 충남 문화상품 등급

2020년 인정문화상품 선정
전통제작기법·완성도 ‘우수’

올해 충남 대표 문화상품에 공주 주얼테크의 ‘무령왕의 잔’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

도는 최근 ‘2020년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무령왕의 잔을 인정문화상품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도의 인정문화상품 지정은 도내 우

수 문화상품을 발굴·선정해 충남 문화의 우수성을 안팎에 알리고, 문화상품 매출 증대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했다.

이번에 3개 업체 4개 상품 가운데 뽑힌 무령왕의 잔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탁은잔’ 제작 기법을 살리면서, 뛰어난 조이질로 완성도를 높여 심사위원회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았다.

도는 인정문화상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제조업체인 주얼테크에 상품 개발



장려금을 지원해 충남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담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정책과 041-635-2413

할머니의 일생을 소설로 엮다

채운동 출신 김현석 작가 집필
친할머니의 일생 이야기로

[당진]채운동 출신의 김현석 작가(87)가 할머니의 일생을 소설 형식으로 엮은 ‘먼동이 틀 때-할머니 우리할머니 면천할머니’를 출간했다.<사진>

김 작가가 조모 유인월 씨의 일생을 소개한 이책은 면천과 당진편으로 나눠졌다.

면천편에는 1894년에 면천 몽산 아

랫마을에서 태어나 결혼 전까지의 삶이 담겼다면, 당진편에는 결혼 후의 생활과 자식을 키워낸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았다.

김현석 작가는 “작고 왜소한 체구의 할머니는 일제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살며 외아들을 애국자로 키웠고, 제헌국회의원 당선의 영광을 누리셨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받으신 것은 없으시나 불교·유교·기독교의 모든 사상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현석 작가는 “우리 집안의 역사 이야기이지만 당진 지역의 역사이고 우리나라 역사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개했다.

문예춘추신인문학상 수필부분을 수상한 김현석 작가는 지난 2013년 회상록 ‘세월은 강물처럼’을 출간했다.

지나영/당진신문

어두운 현실을 비춘 지식인

충남의 근현대 문인들

⑨ 논산 박노갑

자전적 성격 강한 작품 세계
사회문제에 닿은 작가적 시선
해방 후 좌절과 고뇌 그려내



인해 양쪽에서 모두 외면당하기도 했으나, 농촌 소설과 도시소설을 개척해 인생

문제, 사회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작품은 주로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궁핍함과 범죄, 매춘 등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심리를 탐구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사십년’으로 문학적 역량을 집대성함은 물론 자전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인식시켰는데,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숨 가쁜 민족사의 전개와 그 속에 휘말리던 지식인의 좌절과 고뇌를 그렸다. 그러나 이후 창작을 멈추고 교육에만 전념한다.

해방 후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해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했고, 1949년 모교인 휘문고와 숙명여고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숙명여고 때 소설가 박완서, 한말숙의 담임이기도 했다. 1951년 수복된 뒤, 숙명여고에 출근하겠다고 나간 것이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행적이 됐다.

소설가 박정규는 그의 차남이고, 삼녀인 규애는 이장호 영화감독의 부인이다. 1988년 해금이 이뤄지면서 박정규는 ‘사십년’, ‘마을의 이동’, ‘안개거리’라는 제목으로 3권의 전집을 간행, 아버지의 문학이 재조명 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정우
충남문인협회 회장

논산에서 부여로 향하는 4번 국도변, 큰물이 지면 섬처럼 뜨는 작은 마을이 생긴다 해서 이름을 얻은 섬마을이 있다. 그곳엔 도촌(島村)이라는 고향마을 이름을 자호를 지은 소설가 박노갑의 흔적이 있다. 그는 당대 역량 있는 작가였음에도 생애적 요소의 편견으로 그동안 논의가 유보되고 업적이 폄하되는 바람에 문단이나 학계에서 조명이 활발하지 못했다.

1905년 논산 광석면 득윤리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살림에도 교육열이 높았던 부친 덕분에 한학을 배우고, 석성소학교를 다녔다. 19살에 상경해 휘문고보에 입학, 거기서 선배 정지용 시인과 인연이 만들어지면서 훗날 정지용이 편집장으로 있던 ‘문장’지에 집중적으로 소설을 발표한다.

일본 호세이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조선중앙일보 기자로 임사하면서 본격 문학활동을 펼친 박노갑은 1933년 ‘안해’를 조선중앙일보에 발표하면서 데뷔했다. 1948년 마지막 작품이자 대표작인 ‘사십년’을 남기기까지 장편 1편, 중편 2편, 50여 편의 단편을 썼다.

그는 당시 대립적 관계에 놓였던 경향문학과 순수문학에 치우침 없이 작품 활동을 했다. 이로

윤봉길유적지 ‘일제잔재’ 퇴출

日조경문화 전통문화 변경 추진

[예산]예산군이 덕산 윤봉길유적지에서 일본 수목·조경 등 ‘일제잔재’를 청산하기로 했다.

관광시설사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일본산 수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뒤 내부회의를 열어 앞으로 추진하는 ‘윤봉길유적지 종합정비계획’에 일본산 수목과 일본식 조경기법을 걷어내고 전통조경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매한 윤봉길 의사의 항일독립의지가 깃든 충의사 일원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들여온 수종과 일본식 조경문화가 우리나라 수종 등과 뒤섞인 상황에서 드러온 소식이다.

충의사탑 관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충의사성역화사업을 할 때, 전통조경개념과 설계·시공하는 사람이 없어 당시 일본식 조경방식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산 현충사도 같은 상황이며, 20여년이 넘게 일본식 조경을 바꾸는 중이라고 한다”며 “조사 결과 유적지 안에는 일본산 수종 3937그루를 심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두레/무한정보

자연석 연못에 비친 전통가옥

그림으로 떠나는 충남
古宅스케치
-예산 박기성 가옥

예산군 대흥면에 위치한 박기성 가옥은 1638년(조선 인조 16년)에 창성 부사를 지낸 박범성이 건립했다고 전해진다. 약 30년 전 소유주인 박기성이 보존하면서 새롭게 고쳤다. 건

물의 앞면은 함석지붕으로 원래의 모습을 잃었으나 앞면에 남아있는 건물은 건립 당시의 형태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이 건물은 우진각 지붕이 겹쳐마로 -자형 건물이고 자연 주춧돌에 방향의 기둥을 세웠다. 정면 4칸 측면2칸의 규모인데 앞쪽 1칸에는 뒷마루가 설치돼 있고 왼쪽 1칸은 누각으로 한 칸 높여 지어졌다. 하방은

손질된 나무판으로 고매이 시설돼 있으며 각 칸에는 2짝 여닫이문이 달려 있다.

박기성 가옥은 30여 년 전 원래의 형태를 살려서 보존, 개축됐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가옥의 본래 모습은 많이 변형되고 파괴돼 현재는 사랑채 한 채만 존재한다.

가옥 뒤편의 야산과 앞쪽에 자연석을 이용해 조성한 작은 연못에 스케치 갔을 때 연꽃이 한창이어서 그려봤다.

글·그림/여행스케치회 흥기옥





충남의 신중년 지원 정책을 기대하며

내포칼럼



백진숙
(사)한국지역복지정책 연구회 사무국장

올해 출생아 수가 전년에 비해 10% 이상 줄고, 코로나19로 취업과 결혼이 미뤄져 내년과 내후년에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 하니, 최악의 현실에 직면한 듯 싶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저출산·고령화에도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신중년세대도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밀려나고, 노인빈곤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가능해진다.

2017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은 생산가능인구의 약 30%에 이르는 5060세대가 계속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것이었다. 즉 약 60%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소득이나 재산 등 사회 경제적 지위는 '중간층 이상'의 높은 사회 계층 의식을 가진 이 세대가 대거 퇴직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의 재취업과 창업, 귀농, 사회공헌을 돕는 체계적인 정책이 절실하기 때문이었다. 신중년은 보통 30세 전후에 취업한 후 평균 49세에 주된 일자리에 몰려나지만 70대 초반까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준비가 허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해 저임금 임시직이나 생계형 창업에 몰리고 있다. 이들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증폭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수명 연장 장과 저장장 때문에 우리나라 가족 부양구조가 변화하면서 현재 2가구 중 1가구는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 경제지원을 하고 있고,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간병을 하는 경우는 62.4%로 더 많다. 5060세대가 노부모 부양과 성인 자녀의 지원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더블 케어(double care) 상태인 경우도 많은데, 고정비 성격의 더블 케어 비용이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수준이고, 조사대상 가구소득의 평균 20%를 차지해 이들의 노후를 잠식

고 있다. 이들 세대는 더블 케어의 부담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주의 양육까지 돌봐야 하는 트리플 케어로 이어질 수 있고, 더블 케어 10가구 중 4가구에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퇴직은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어 자의 반 타의반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정책과 65세 이상 노인 정책 사이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 세대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이들 과반수가 노후자금 마련을 못한 것에 가장 크게 후회하며, 5060세대의 절반 이상이 퇴직 후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이들 세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면 무엇보다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비싼 인건비, 즉 연공체계의 문제를 직무급으로 바꾸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동일직무 동일보상으로 실현하면 노인 인력도 비용을 절감해 오래 활용할 수 있다. 청년과의 일자리를 두고 다투는 세대갈등도 해결될 것이다. 노인이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인이 직무능력이 아니라 연공에 따라 자리를 차지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 급격한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재취업과 창업에 실패하는 이들에게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맞춤형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취업자 수를 늘리도록 독려하는 것보다 기술 변화와 시장의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 협조해 전직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충남에서도 시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부여군에서 신중년세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개발과 대책마련을 시도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지자체에서도 이들이 현업에서 쌓은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발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생산가능인구의 30%, 50~64세

젊지도 늙지도 않은 신중년세대

은퇴 후 재취업·창업·사회공헌 등 기술·노하우 활용할 정책 절실

정부·민간 주도 맞춤형 교육훈련 동일직무 동일보상, 비용절감 등 고용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해야

청년들의 보금자리, 충남

나는 도민이다

③김진배 청년활동가

청년 참여기구로 민·관 소통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등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 선도



슬로우시티와 첨단 과학 기술이 만나는 곳,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복잡하지 않다는 특색을 지닌 지역 충청남도. 나는 대학시절과 직장생활 기간 몇 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이곳 충남에서 지내온 토박이 도민이다. 기간으로만 따지면 30년이 넘는 세월을 충남에서 머물러온 것이다. 한 때 서울살이를 꿈 꾸던 적도 있었지만 '나의 고향 나의 충남'으로 돌아온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충남은 정책을 빠르게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행정 철학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지역에서 나고 자라난 이유에서인지 지역을 발전시키면서도 지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 이는 '나'라는 개인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미래세대인 청년과 지역 공동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금의 청년들은 단순히 위기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 충남 청년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좋은 일자리의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주택 문제 등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은 청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나는 충남 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청년 참여기구인 충남청년네트워크에서는

사무국장으로, 마을에서는 통장으로 활동 중이다. 청년공동체 느루라는 단체를 통해서도 로컬컨텐츠, 환경보존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충남은 이를 위해 청년네트워크 등 참여기구를 통해 민간과 행정의 소통하며 ▲청년정책과 신설 ▲기본조례 제정 ▲청년정책 및 사업 정비를 빠르게 이뤄냈다. 선진지에 비해 늦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만큼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착실히 나아갈 수 있었다.

특히 청년의 주거문제와 결혼, 저출산 문제를 복합적으로 잘 풀어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도 충남 청년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큰 성과다. 특히 청년들이 기존 행복주택에서 느꼈던 불편함 등을 개선해 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청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행정의 목표가 온전히 결합할 수 있다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지 않을뿐더러 새로운 선순환의 구조로의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충남도와 전문가 그리고 청년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조직의 구성과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존감과 자존심

나태주의 꽃꽃편지



한국시인협회 회장
꽃꽃문학관장

자존감과 자존심은 얼핏 같은 뜻으로 이해되는 말이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 정도가 그 뜻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생활, 적용단계에서 두 단어는 서로 다르다.

자존심이 사회생활 가운데 타인과 어울릴 때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라면 자존감은 혼자서 생각할 때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라 하겠다.

사람에게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무엇인가 물으면 한국인들은 의식주라고 대답한다. 누구나 무심코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을 조금만 눈여겨 들여다보면 한국인들의 체면 문화가 대번에 드러나게 된다. '먹고 입고 살고'라고 말하면서도 그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을 때는 '입고'에 해당하는 의(옷)를 제일 앞자리에 두니까 말이다.

총계 말하면 체면의식이고 나쁘게 말하면 허위의식이다. 억지로라도 꾸며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걸 차례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한국인들을 점

잖은 사람들로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젊지 않는 사람, 노인을 닮은 사람이 애당초 한국인의 이상적인 인간상이었던 거다. 이런저런 삶의 내력과 현실 안에서 우리는 자존심은 높지만 자존감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됐다.

이 두 가지 마음의 간극, 그 괴리 속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 썩는다. 소외감, 우울감, 열등감, 심지어 열패감까지 따라붙는다. 이것은 바로 불행감으로 직결한다.

한국인들이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타인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존감이 낮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자존감 결여는 큰 문제다. 마땅히 젊은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믿고 내일의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젊은이들 자신도 그러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어른들도 젊은이들을 도와야 한다.

자존감은 또 하나의 목숨이다. 내 마음의 시름과 문제를 맡겨야 할 고향과 같은 마음이며, 상처받은 자아를 보듬어줄 오직 부형 같은 마음이다.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하자.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신뢰하자. 내일은 분명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믿고 기다려보자.

장마철쓰레기, 모두의 관심 필요하다

생생현장리포트



김정기
서천신문 편집국장

수거 국비지원·차단시설 시급 전담 처리 주체 명확히 해야

해마다 장마철이면 서천군 해안가는 금강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다양한 쓰레기들로 뒤덮이며 몸살을 앓는다. 올해 역시 그랬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죄로 서천군은 매년 '쓰레기 텃터기'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게릴라성 폭우와 장마가 50여일 가량 지속되며 그 피해가 더욱 컸다.

문제는 되풀이되는 장마철 쓰레기의 수거비용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과 금강 상류지역의 쓰레기 차단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다행히 지난 2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에서 금강하구둑 부유쓰레기와 관련해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충남도, 해양청, 서천군 등이 모였다.

장마철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서천군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올해에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마철 쓰레기는 심각한 바다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수거되지 못한 80% 이상의 쓰레기는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데 바다로 흘러온 온갖 쓰레기는 양식장을 초토화시키기 마련이고 어선과 충돌하거나 스크루를 망가트려 해난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어망을 훼손하고, 조업을 방해해 장마가 시작되면 일부어민의 경우 출어를 포기하는 게 현실이다. 어민들이 장마철을 걱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다. 처리비용도 육지에서보다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계곡이나 야산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게다가 쓰레기가 쌓인 위치에 따라 처리주체가 나눠진 것도 문제다. 물에 떠다니며 움직이는 쓰레기를 단지 자기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경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한 기관에서 쓰레기 처리를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충남, 전북 등 금강 근교의 계곡이나 외진 곳마다 버려진 쓰레기는 결국 장맛비를 따라 서천 앞바다로 흘러온다. 당국의 계도와 단속활동도 필요하지만 금강 주변 자치단체 주민들의 성숙한 주민의식과 국가적인 관심 또한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해 본다.



일제 강점기 때 공주에 있었던 충남도청과 경찰서(왼쪽)



1930년대 대전으로 옮긴 충남도청

도청이전은 경부선 철도가 비켜간 공주의 비운이었다

(1932년 공주→대전 이전)

도정신문 30년 특별기획 - 충남 근현대사 100년을 말한다

② 일제강점기 도청이전이 끼친 영향

조선 후기, 충청의 행정 교통 중심지 공주

조선 전기에 충청도를 관할하는 충청 감영은 충주 혹은 청주에 있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일부 지역의 읍지 기록에는 충주에 감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청주에 감영이 있다고 적혀 있어 그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공주에 충청 감영이 있었음이 확실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임진왜란 때 명이 조선에 파견한 원병이 충청도로 진입하자 그 군량 보급이 무척이나 어려워 국왕과 대신들이 당혹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대신들은 “삼남 지역에서 식량이 가장 많은 곳은 공주다. 공주는 충주, 청주와도 가깝고 금강을 통해 물자를 운송하기도 용이하다. 이 고을에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충청도의 지방관과 호조 관원들을 파견해 두면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막기 쉽다”고 왕에게 보고한 기록이 확인된다.

충청도 내포 지역은 한양으로 물자를 운송하기도 쉽고 물산도 많아 ‘나라의 곳간’이라고 불린다. 공주는 바로 이 내포 지역과 내륙 요충지인 충주, 청주로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요지인 동시에 금강을 통해 전국 여러 고을과 연락할 수 있는 지점에 있던 도시다.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을 감안해 왜란 당시에 신하들은 선조에게 공주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공주는 실로 충청도의 행정, 교통 중심지로 큰 역할을 했다. 개항 이후 조선 정부가 국도 개발에 온 힘을 기울였다면 공주는 내포와 금강 연안 지역의 개발을 이끄는 중요한 위치에 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했다. 일제는 1904년에 경부선 철도를 부설했는데, 이때 공주를 그 노선에서 제외하고 천안과 대전을 곧바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만들었다. 후자는 당시에 공주의 ‘양반’들이 철도 부설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공주 유림의 반대는 경부선 노선 확정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부선 부설로 충청경제 쇠락

일제가 경부선을 부설할 당시에 노선 확정 임무를 맡았던 마쓰다 고조는 몇 차례에 걸쳐 충청도 일대를 답사했다. 그는 당초 전의-공주-논산-금산-김천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확정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철도를 놓게 되면 노선의 길이가 30km 가량 늘어나게 되어 부설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논란이 무척 컸던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는 철도 건설 비용을 줄

인다는 명분을 내걸고 공주, 논산 등 충청남도의 핵심 지역을 노선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경부선 철도가 부설된 후부터 충청남도 지역 경제는 크게 쇠퇴했다. 열차 개통과 함께 금강 수운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고, 금강 하류 지역과 내포 지역은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충청 감영이 있던 공주의 쇠락은 더 극적이였다.

조선 후기에 공주는 감영을 오가는 아전과 상인들이 북적이는 상업 도시였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배와 함께 지역의 기업과 공장들은 대전으로 근거지를 옮겨 버렸고, 지역 주민들은 그저 충청남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소매 상업에만 매달리는 처지가 되었다.

“경부 호남 양철도의 개통과 공주를 중심으로 중흥으로 열린 육로 교통은 공주의 상권을 축소시켰다. 공주의 고야(高野)로부터 생산되는 물자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주위 인접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데(…중략) 지역의 공산품 생산 기능은 철도 연선의 다른 도시에게 빼앗겼다. 공주에는 외부에서 생필품을 사들여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상인들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도시의 상업이 유지되는 것은 도청이 있기 때문이다.(전중시 지조, 충남산업지 1921)

일제, 대전으로 도청이전 강행

일제 식민지배와 함께 몰락한 공주의 지역경제는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으로 더 나빠졌다. 경부선이 공주를 비껴가고 대전이 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되자 대전 주민들을 중심으로 도청의 대전 이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마침 조선총독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인지 192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도청 이전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렇게 공공연히 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공주 시민들은 불안해

건설비용 이유 경부선 공주노선 제외 공주의 행정 교통 대전으로 대이동

기업, 공장 대전으로 근거지 옮겨 공주시민 충남도청 이전에 울분

도청이전 대가로 공주 금강교 가설

대전 도청 이전지 부동산 투기 성행 김갑순 등 대지주 막대한 차익 올려

하기 시작했다. 특히 1928년 2월에 조선총독부 고위 관리가 충남도청을 곧 대전으로 옮기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말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크게 동요했다.

주민들은 1931년 1월에 조선총독부가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을 공식화하자 조선총독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당시 신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생활근거를 도청으로 삼던 일반 삼천여 명의 공주시민은 도청 이전 방지 운동을 필사적으로 한다. 지난 13일 오후 2시에 상경 진정원 32인으로부터 총독이 도청을 대전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언명을 받았다는 전화가 오게 되자 공주시민들은 실망, 낙담하는 동시에 공주시내는 함박한 공기가 돌고 있다. …(중략)… 총독부를 방문한 일행이 돌아와 “금번에 상경해 진정원 결과는 공주시민에게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로, 도청은 대전으로 결정되었다”라면서 울음 섞인 소리로 보고했다.(동아일보 1931년 1월 16일자 기사 ‘충남 도청이전확정과 일희일비의 양처 주민’)

낙담한 공주시민, 끈질긴 보상요구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공주 시민들은 그 직후부터 조선총독부에 끈질기게 ‘보상물’을 요구했다. 철도를 충남 내륙으로 연결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충남 지역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전문학교라도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일제는 이러한 요청마저 거부했다. 그들은 지역 개발보다 행정 편의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한국인들을 위해 조선총독부 예산을 쓰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이런 소극적 대응에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일제는 식민지배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든 가라앉혀야겠다고 판단했던 까닭인지 1932년에 경성-목포 간 도로의 공주 구간에 금강을 가로지르는 철교(금강교)를 가설하기로 했다. 조선총독부는 이 다리를 가설해주는 것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주 금강교는 아직도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지만, 지역의 불균형 개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마침내 충남도청은 1932년 10월 1일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게 된다. 도청이전으로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 동남부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다른 지역의 개발은 도외시되었다. 김갑순과 같은 대지주들은 도청 이전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 대전 시가지 인근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여 큰 차익을 거두어들이었다고도 한다. 대전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도 도청의 고위 관리들과 접촉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식민지배는 단순히 피지배 민족의 자긍심을 짓밟는 관념적인 그 무엇에 그치지 않는다. 식민지배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아닌 소수의 특권 계층의 입장에서 모든 현안을 처리했다.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방지할 시스템은 부재하고 오로지 위정자의 판단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그런 모순으로 가득한 사회였던 것이다.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



금강교가 건설되기 전 설치된 배다리.



대전 도청이전 대가로 건설된 금강교. 1932년 1월 착공해 1933년 11월에 개통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태안, 가을 꽃게잡이 출항이요~

금어기 해제 청정꽃게 대풍
청록색 반점있어야 태안꽃게

[태안] 충남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잡이가 본격 시작됐다.

태안군에 따르면 근흥면 채석포항에서는 금어기 해제일인 21일 0시를 기해 10여 척의 배가 바다로 나가 3톤의 꽃게를 신고 위 판장으로 돌아오며 본격적인 꽃게잡이의 시작을 알렸다.

수확 첫날인 이날 채석포 위판장에서는 꽃게 1kg당 1만 원 선(중대 크기 기준, 당일 수확량에 따라 차이 있음)에 위판가가 형성됐으며, 앞으로 수확량이 늘어나면 가격 변동이 예상된다.

태안 꽃게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청록색의 윤기가 흐르고 특유의 반점이 오밀조밀하게 물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꽃게의 '타우린'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망막 형성과 시력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알코올 해독에도 효능이 있으며 심장과 간 기능을 강화하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 당뇨병을 예방하는



태안 어민들이 잡은 꽃게를 배에서 내리고 있다.

데도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 “태안 꽃게는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를 의미하는 태안의 마스

코트”라며 “올 가을에도 꽃게 대풍이 들어 지역경제에도 훈풍이 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태안군 제공

남포 사현 노지포도 본격 수확

해풍 맞으며 황토밭 재배
당도 탁월해 주문량 폭주

[보령] 보령시 남포사현 마을에서 재배된 노지 포도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남포 사현마을 노지포도(사진)는 63농가에서 8월 중순부터 추석 이전인 9월 말까지 출하할 계획이다.

보령 8미 중 하나로도 손꼽히는 사현포도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풍과 강우량, 자갈과 황토가 섞여 물 빠짐이 좋은 토양과 포도 재배

에 최상의 조건을 갖춰 맛과 당도가 뛰어나다.

또한 화학비료 대신 EM농법을 통해 저농약 친환경으로 생산하고, 포도생산에서부터 수확, 포장 단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로 우수농산물 GAP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 노지포도는 장마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보령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강우량이 많지 않아 적당한 강우량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예년보다 높은 당도를 형성하고 있어 수확량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강동구 남포면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의 방문 판매 보다 전화 주문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노화 방지와 안구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남포 사현포도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 제공



시막을 옮겨놓은 신두리사구 끝머리 **[태안]** 우리나라 섬을 제외한 육지의 사구 가운데서 자연환경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곳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가 그 끝머리에 장관을 이룬다. 신두리 사구는 길이 3.4km, 폭 200m에서 최대 1.3km 정도로 넓다. 사구의 표면은 대부분 사초로 덮여 있고, 해안 가까이에서는 해당화나 갯방풍, 갯완두 등도 자란다. 이병헌/도민리포터

서산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원도심, 가로림만 등 4개 분야

[서산] 한국사진작가협회 서산지부는 테마가 있는 서산 관광사진이란 주제로 '2020년 서산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29일까지며, 당일 도착분에 한한다.

분야는 4개로 ▲서산원도심(번화로·동부시장) 매력 찾기 ▲서산여행 인증 사진 ▲기발한 사진콘테스트 ▲기타(서산야경, 항공사진, 가로림만, 아라

메길)다. 접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서산지부(서산시 울지16로 48, 서산우체국 사서함26호)로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10월 31일 전문가 공개심사를 거쳐 ▲금상(상금200만원) ▲은상(상금100만원) ▲동상(상금50만원) ▲佳作(상금30만원) ▲입선(상금10만원) 등 총 121점을 선발한다. /서산시 제공

윤보선 대통령 서거 30주기 추모식

“풀뿌리 민주주의 신봉자”
유물 13만점 기탁 협약도

[아산] 해위 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이사장 김성수)는 지난 달 26일 ‘해위 윤보선 대통령(사진) 서거 30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해위 윤보선 대통령 서거 30주기 추모식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추모식 행사는 김중태 굴욕적 한일 회담반대 전국대학생 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윤보선 대통령과의 회고담이 발표됐다.

김중태 위원장은 회고담 발표에서 “해위 윤보선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아닌 한걸음 한걸음 확실



한 보법으로 모든 사람과 어울려 동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신봉자, 실천자로 더더욱

그리울 뿐”이라며 윤보선 대통령을 회고했다. 장기표 대표는 “윤보선 대통령은 유신독재 말기에 민주화운동의 버팀목이 됐으며 언제나 원칙과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흠결이 거의 없는 정치지도자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보선 전(全) 대통령의 후손인 윤상구 이사는 아산시와 지난 7월 9일 대통령기념관 건립 시 소유기록물 13만205점(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대통령기록관 기탁 중)의 유물을 기증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혜진/온양신문

채광석 시인 민주 묘지에 잠들다

33주기 맞아 5·18묘지서 영결식
독재권력 맞선 안면 출신 민족시인

[태안] 안면도 출신 채광석 민족시인(한국 작가회의 명예 사무총장·사진)이 지난 달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 2묘원으로 이장됐다.

국가보훈처는 올 6월 민주유공자로 결정된 것을 계기로 33주기에 즈음하여 경기도 양평 사하면 팔당 묘원에 영면되어 있던 고인의 유해를 5.18 민주묘지로 옮겨온 것이다.

시인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군부 독재권력에 맞서 싸우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타계, 한국문단에 큰 충격



을 안겼었다. 그는 군사독재 정권 아래 ‘호헌반대 1백만인 서명’과 ‘문학인 193인 개헌 촉구 성명’ 운동 등에 앞장섰으며 자유실천문인협의회(현 한국작가회의)를 재 창립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채광석 시인은 1948년 7월 11일 안면읍 창기리에서 18대·20대 안면면장을 지낸 고 채규송 면장의 4남 2녀 중 차남으로 출생해 창기초, 안면중을 거쳐 대전고, 서울대 사범대 영어교육과에 입학했다.

신문웅/주한태안신문

보령머드화장품, 대한민국 혁신대상

집콕 머드체험키트 등

[보령] 보령머드 화장품이 2020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에서 품질혁신 분야 천연화장품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보령머드화장품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게르마늄, 벤토나이트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함유돼 피부수축과 피부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사진)

지난해 7월에는 오션테라피로 고급화하여 기존 머드화장품에 머드 함량을 대폭 높인 신제품 11개 품목을 출시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힘써왔다.



올해는 제23회 온라인 보령머드축제를 기념하고 비대면 판로 확대를 위해 선보인 머드파우더와 머드팩으로 구성된 집콕 머드체험키트를 출시해 2000세트를 조기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시도로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보령시 제공

대호지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1300기 봉안...부부합장 가능

[당진] 당진시가 대호지공설묘지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을 마치고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대호지공설묘지 내 봉안평장(와비) 묘역에 16단 중 8단을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을 마쳤다.

지난달에는 고향에서 영면을 희망하는 유공자들에게 이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공자묘역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입구 안내표지판 설

치도 완료했다.

약 1300기를 봉안 가능한 대호지공설묘지 국가유공자 묘역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당진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공상군경, 전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가 이용 대상이며 부부합장도 가능하다. 이용 자격 및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호지공설묘지 관리소 또는 당진시 경로장애인 장사문화팀(041-350-3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 제공

안흥진성 국가사적 지정 예고... 문화유산 가치 인정

충청 유일의 수군방어영

보존가치 높은 문화유산

10월 문화재청서 승격 심의

[태안]문화재청이 조선시대 충청도 유일의 수군방어영인 '태안 안흥진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 위치한 '안흥진성'은 충청남도기념물 제11호 '안흥성'으로 지정돼 있다.

'안흥진성'은 성벽 각자석을 통해 1583년(선조 11년)에 처음 축성되었으며, 1656년(효종 7년) 수축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안흥진성은 길이 1714m의 포곡식 산성으로 조운로의 주요 거점이자 한양 및 강화도의 안정적인 방어기능 역할을 담당했으며, 안흥방어영(종2품 방어사 군영)으로 승격되고 18세기 후반에는 충청수영 행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신진도 고가 벽지에서 발견돼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학술세미나 현장에서 공개된 수군군적부는 안흥진성의 가치를 높여주며 안흥진성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 발견된 수

군 군적부는 충청 수군을 비롯한 조선시대 수군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희귀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흥진성'은 문헌기록에 축성의 연도와 배경, 결정 및 완공시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전국의 통제영과 방어영, 수영, 수군진성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해 수군진성(水軍鎭城)의 원형을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평가받는다.

'안흥진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승격은 10월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민령/주간태안신문



태안 안흥진성

아삭한 천안 '홍주 씨들리스' 포도 출하

껍질째 먹는 기능성 포도

천안 특화 포도 육성 계획

[천안]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껍질째 먹는 아삭한 우리 포도 '홍주 씨들리스'를 올해 첫 출하했다.

'홍주 씨들리스'는 우리 포도 품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2019년부터 천안지역에 보급됐다.

국내에서 개발한 홍주 씨들리스 품종은 머스켓 향이 나며 알이 큰 포도 이탈리아(Italia)와 아삭한 식감이 좋은 펄론(Perlon)을 교배해 육종한 품종이다.

홍주 씨들리스는 과육이 아삭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며, 18° 브릭스 당도를 자랑하고 산함량이 높아 새콤

달콤한 사과 맛이 나는 게 특징.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발표한 홍주포도는 항암, 항균 작용을 하는 항산화물질(에피카데킨)이 껍질째 먹는 외국포도 품종에 비해 20배 이상 많이 함유된 영양학적 측면에서 건강기능성이 매우 높은 포도라는 것.

천안시농기술센터 관계자는 "홍주 씨들리스를 선도적으로 확대 보급해 거봉포도에 이어 천안의 대표적인 지역 특화 포도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제공

청양산 여름구기자 수확 한창

전국 생산량 70% 차지

2030년까지 1000억 창출 목표

[청양]청양산 여름구기자 수확이 한창이다. <사진>

청양구기자는 73ha, 748농가가 연간224톤을 생산하고 있다. 청양 구기자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8월 수확을 시작으로 12월 초까지 계속된다.

청양구기자는 혈중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튼튼히 해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손상된 간세포 재생을 촉진시키는 등 간기능 개선 효능도 있다. 비타민 C와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미용 효과



와 판토텐산이 풍부해 기억력 향상 등 두뇌발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물에 끓여 마시거나 분말 형태로 섭취하고, 군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티백·한·분말·액상 등 다양한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편 청양군은 생산-유통-가공-소비 연계 거점 조성해 2030년까지 구기자 1000억 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순금/청양신문사



천안시 '농촌소풍 떠나는 날' 운영

[천안]천안시농기술센터는 '하반기 어린이 농촌체험교실'을 9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어린이 농촌체험교실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비대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태체험(자연·곤충), 농산물 수확(포도·오이·밤·고구마)체험, 곤충체험, 유가공체험 등 30회 구성으로 1200명이 참여하게 된다. 문의는 농업기술센터(041-521-2916)로 연락하면 된다. 이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비대면 농촌 체험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제공

공주 밤 농가 일손돕기 창구 운영

10월 10일까지 봉사 참여 접수

[공주]공주시는 밤 재배 농가의 일손돕기 창구를 운영한다. <사진>

3일 시에 따르면 일손돕기 창구는 10월 10일까지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및 개인은 공주시청 산림경영과(840-8426)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고령 또는 장애를 안고 있거나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시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알밤수확 지원활동도 전개해 일손부족 해결 및 밤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공주시는 "공주 밤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적극 동참해주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주시 제공

당진 온라인 쇼핑몰 '당찬한끼' 오픈

당진전통시장, 농산물 당일배송

지역농산물 150가지 서비스

포장 배송 인력 등 고용창출도

[당진]당진전통시장협동조합은 9월 11일 온라인 쇼핑몰 '당찬한끼'를 오픈한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당찬한끼는 상인들이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시장 장점을 살려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

전통시장 상인들이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소분해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간편식과 도시락을 만들어 선보일 예정이다.

캠핑·여행을 위한 꾸러미 상품도 출시한다. 당찬한끼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50여 가지의 상품을 판매하고, 당일배송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배송 받는 한편 포장과 배달 인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찬한끼에 가입한 회원들



대상으로 당진어시장 2층에 쿠킹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강연도 연다.

당찬한끼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오픈하며 추첨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추석 차례상 꾸러미 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아연/당진시대

당진쌀로 빛은 '당진소주' 출시

당진쌀 전용 효모로 제조

[당진]당진지역에서 생산한 생쌀과 효모로 만든 증류식 전통소주인 당진소주가 9월 출시될 예정이다.

당진소주는 농촌진흥청이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전통 증류 소주 대중화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개발됐다.

당진소주는 순성 왕매실영농조합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현재 송악농협 RPC에서 출하된 쌀을 사용했다.

당진소주는 기존 희석식 소주와 달리 주정을 쓰지 않고 쌀을 찌는 과정 없이 지역의 생쌀가루를 발효시켜 사용하고, 증류해서 만든 전통주다.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농업연구관은 "현재 시중에서 소비되고 있는 소주는 대부분 수입농산물로 제조된 것"이라며 "'우리소주연합' 결성으로 공동기획, 공동마케팅을 통해 기존 전통소주 생산단가보다 약 30%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전통소주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예나/당진시대

태안군, 불용농기계 매각

퇴비살포기 등 114대

[태안]태안군이 '불용농기계 관내 농업인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 <사진>

군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하던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노후화돼, 임대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22종 114대의 불용농기계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구입자격은 공고일(2020.8.18.) 현재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군은 최대한 많은 농업인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대원 중 1인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각과 선정은 신청자가 1인일 경



우 수의계약하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현장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과 수의 계약한다.

군은 "이번 불용 농기계 매각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안군 제공

목은 이색선생 충절... 이색체험에 흠뻑 빠지다

더 행복한 마을 - 서천 이색체험마을
유일무이 색다른 체험·먹거리 추구
식물예술원·분재원·문화박물관 등
명인과 함께 발효식품 만들기 '인기'



서천 이색체험마을에서는 모시떡, 천연발효식품 만들기 등 특색 있는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방문객들은 마을을 벗어나지 않고도 식물예술원과 분재원, 우리문화학습박물관 등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우리 마을 이름은 목은(牧隱)이색(李穡) 선생의 충절을 기리는 뜻과 이색적인 체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서천 이색체험마을은 온새영농조합법인 박재한 대표가 마을 이름에 고려 말기 충신에 대한 존경과 차별화라는 목표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색체험마을은 이름에 걸맞게 고유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자랑한다. 농촌쇠퇴의 어려움 속에서도 뚝심을 가지고 서천 최초의 체험휴양마을로서의 명성도 있고 있다.

박 대표는 “초창기, 개인 손님들을 대상으로 운영했을 땐 적정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며 “차츰 단체객들을 대상으로 민박과 체험을 제

공했더니 마을이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힘을 갖췄다”고 마을 활성화 비결을 설명했다.

이색체험마을은 누리소통망(SNS)으로 체험, 주변 관광지 등을 홍보한다. 마을을 찾은 이들은 지천에 널린 연꽃밭 외에도 다른 마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경거리를 마주하게 된다.

가족과 연인들의 사진 배경으로 특색 있는 역할을 하는 식물예술원부터 고풍스러운 운치를 느낄 수 있는 분재예술원도 마련돼 있다. 마을

입구 학교 옆에 자리한 우리문화학습박물관에선 전통생활·문화상을 전시해 해냈으며 조상들의 시골살이를 간접체험할 수 있다.

박재한 대표는 “찾아주시는 분들이 마을에서만 머물며 맛볼 수 있는 구경거리, 체험거리가 있다”면서 “마을 밖으로도 한산소곡주·모시전시관, 신성리 갈대밭, 문헌서원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체험·먹거리는 ‘색다름’에 방점을 찍는다.

서천의 다른 마을에서 진행되는 소곡주 빚기, 모시베를짜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천연 발효식품 만들기 체험을 특화했다. 참가자들은 마을에서 초청한 명인·장인들과 식초, 각종 청, 소금, 한방약재 등을 만들며 이색체험마을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남긴다. 박 대표에 따르면 손님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식품 발효과정을 지켜보며 만들기 체험과 결과물에 대한 애착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색체험마을은 연꽃·잎 체험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연꽃이 만개하는 7~8월 연꽃축제를 열고, 연을 활용한 음식·술 만들기 체험마당을 마련하는 것이다. 박재한 대표는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1등 체험휴양마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는 마을을 시골벽척한 이들이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생기 넘치는 마을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재현 scottju@korea.kr

당진정보고, 배드민턴 전국대회 '준우승'

단체전 2개 대회 연속 준우승
개인전 은2·동2 따내며 선전



당진정보고등학교 배드민턴부 단체사진

[당진]당진정보고등학교 배드민턴부가 지난 8월 17~23일 경남 밀양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2020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무관중으로 펼쳐진 이 대회에서 당진정보고는 32강 토너먼트로 치러진 단체전에서 서원고, 광명북고, 웅상고를 차례로 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펼쳐진 전남대사대부고와의 준결승전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매원고등학교와 결승전에서 접전을 펼친 끝에 아쉽게 2대3으로 패배했지만, 봄철 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단체전에 이어 진행된 각 학년별 개인전 경기에

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2학년 단식부문에서 진용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2학년 복식부문에서 진용 선수와 조성민 선수가 역시 준우승을 차지했다. 3학년 단식부문 김성재 선수가 3학년 복식부문 이병진 선수·김순현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했다.

박재현/서해안신문

기적의 서해 청정 바다를 떠올리며...

독자투고

올해 9월은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개관한 지 3년째 되는 달이다. 기념관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10년 뒤인 2017년 9월 헌신과 노고로 재난을 극복한 서해 바다를 기념코자 만리포해수욕장 인근에 개관했다.

2007년 12월 7일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 해수욕장해변에 30cm 두께의 시꺼먼 기름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타르 덩어리는 양식장을 삼시간에 황폐화시켜 버렸다. 생계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 탄식할 뿐이었다. 2차 오염을 염려한 주민들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 실정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던 만리포 해변에서 더 이상 환상적인 낙조도, 갈매기의 울음도 듣지 못하게 될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서해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관광서를 비롯해 개인, 기업,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봇물 터지듯 태안으로 몰려왔다. 어떤 기업은 자사의 기름 흡착포와 클리너를 가져와 닦아내고, 부녀회 아줌마들은 헌 옷으로 바위에 붙은 기름을 닦아냈다. 어린 학생들은 모래 속에 스며든 기름띠를 제거했다.

국민들의 노력으로 태안 바다는 해양수질 등급이 우수한 청정 바다가 됐다. 3.1독립만세운동, 6.10만세운동 등이 나라찾기 운동이었다면 태안 앞바다의 자원봉사활동은 나라를 구하는 애국 운동이었다. 절망을 기적과 희망으로 일궈낸 그날의 기억을 추억처럼 이야기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최병부(서산시)

홍성 출신 윤종인, 정보보호위원장 임명

홍성 장곡 출신인 윤종인(57·사진)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종인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9년 만인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통합 감독기구로 공식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공공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수행한다.

윤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관우/홍주신문

조규선 교수, 서산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 선임

조규선 한서대 대우교수(사진)가 지난 18일 서산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서산문화재단은 최근 서산시민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증대를 위해 설립됐다. 조 대우교수는 “서산문화를 발굴하고 지키겠다”며 “새 문화를 창조, 행복한 서산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조 대우교수는 단국대 경제학 석사 졸업, 수필



가와 아동문학가다. 한국기자상을 수상한 언론인 출신으로 4~5대 민선 서산시장을 역임했다.

세마를 포장, 충남문화상, 세계평화교육자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수상집 '내 마음의 빈 터', 에세이 '세상의 공짜 없다' 등이 있다.

/도정신문팀



사서들의 서재



(조원재/블랙피쉬)

작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

예술, 그 중에서도 미술은 친해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마음먹고 간 전시회에 걸려있는 그림들은 그게 그것 같아 보이고 유명한 그림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왔다는 것 외에 할 말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미술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술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한다. 잔뜩 힘이 들어가 시작한 공부는 학자들이 정리한 여러 양식과 사조, 어려운 어휘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다.

저자는 2016년부터 '미술은 누구나

쉽고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팟캐스트 '방구석 미술관'을 진행했다. 미술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접했으면 하는 예술가의 인간적인 모습과 작품 탄생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쉽고 친근한 말투로 풀어낸다. 그저 미술이 좋아서 독학한 저자는 미술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픈 마음에 독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 유럽을 돌아다니며 미술관을 찾아 다녔다. 미술 전문가나 권위자, 미술 전공자도 아니기에 더 자유롭게 흥미로운

시선으로 미술을 대한다.

'절규'를 통해 죽음과 가까운 이미지를 주지만 평균 수명을 높인 장수의 아이콘과 다름없는 몽크, 막장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사랑을 한 프리다 칼로,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화가지만 알코올에 많은 의지를 한 반 고흐, 선배 앙리 마티스와 세기의 대결을 펼친 피카소 등 14명의 예술가의 삶과 작품 이야기가 저자 특유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감칠맛 나게 전달한다.

먼저 관심가고 나에게 더 유명하게 다가오는 그림이나 작가의 부분을 먼저 읽다보면 마치 미술관을 돌아

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다. 화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술의 이론들을 어렵지 않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 줬다. 해당 팟캐스트로 안내하는 QR코드를 통해 더 생동감 있게 책을 활용하다 보면, 어렵기만하다고 느꼈던 미술의 문턱을 어느새 살짝 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소이
충남도의회
의정자료실 사서

“서남부지역 난시청 해소 최선”

전익현 부의장 인터뷰

-농촌지역이 경기침체로 힘겨운 상황인데, “농촌지역 소도시는 인구감소와 경기불황 등으로 지역상권 붕괴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계속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소멸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초부터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구축 연구모임’을 꾸리고 도내 대표적 인구소멸 지역으로 꼽히는 서천의 경제 부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서천 경제의 중심축인 장항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정활동 성과 중 호스릴소화전 설치 조례가 눈에 띈다.

“호스릴소화전은 소방용수시설 등에 소방용릴호스를 연결해 물을 끌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를 말한다. 농어촌 지역은 소방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도로 폭 협소로 소방차 진입이 힘든 곳이 많다. 유인도도 마찬가지다. 소방 사각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에 사용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었다.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충청지역 광역·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수상하며 조례의 필요성·완성도를 인정받았다. 2022년까지 37억 3550만 원이 투입돼 도내 15개 시군 소방사각지대 313곳에 호스릴소화전이 설치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어민 생계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냈는데.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소비 위축,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학교 급식 중단으로 식자재를 생산하는 농어업인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농어업인은 다양한 판매방식과 특수성 때문에 매출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낚시어선어업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했음에도 피해 입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양식어업인 역시 판매 부진과 가격 폭락으로 양식생물을 출하하지 못하고 죽어간 폐사체만 지켜보는 실정이다. 최소한 전업 농어업인에게도 소상공인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책을 반드시 제공해줘야 한다.”

-서남부지역 난시청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해 7월 KBS가 제시한 난시청에 따른 도내 수신료 면제 가구수 현황을 보면 TV수신료 면제대상수는 총 9748대로, TV시청 가구수 대비 0.4% 수준이다. 타 시도의 KBS방송을 수신할 수 있으면 난시청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실제로는 더욱 광범위할 수 있다. 서천의 경우 총 2만 3248가구 중 168가구, 0.7%만이 난시청가구로 인



“ 호스릴소화전 설치로 소방사각지대
도민·재산 보호에 앞장
서천에 공공 의대 유치로
의료 불균형 해소돼야

정됐다. KBS가 재난 주관 방송사임을 고려하면 난시청 해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도민의 알권리 부족은 물론 문화와 정보의 불평등, 특히 재난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원활한 재난방송 수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서천지역 공공의대 유치를 주장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기준 지역별 의사 수를 보면 충남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1.5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번째인 하위 수준이다. 특히 서천은 도내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대학교가 전무하고 제대로 된 병원조차 없다 보니 응급·중증환자는 급급을 넘어 인근의 전북 전주나 익산, 군산 병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유치하고 의과대학을 개설해야 한다. 서천은 장항읍 장암리를 중심으로 약 30만 평의 국유지를 활용해 학교 설립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또 감염병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위치한 최적의 지역이다. 지금부터라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 대기업 유치를 위한 수준의 정책 대안을 만들어 정부 정책에 대응한다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남부권 도시가스 보급확대 노력”

조길연 부의장 인터뷰

-향후 의정 구상은, “도의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정파를 떠나 상생·협력의 자세로 배려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손을 맞잡고 나아가겠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도민 행복을 실현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노력하겠다.”

-상임위 활동에서 던진 날카로운 질문 중 도내 균형발전 문제가 기억에 남는다.

“4대와 7대에 이어 지금까지 세 번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항상 밤을 새우며 많은 자료를 살펴본다. 도정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집행부를 심도 있게 견제하고 대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인구가 적은 도내 남부권역의 보급률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복지 충남 실현을 위해선 낙후된 지역과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에너지보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내 지역간 폐쇄회로(CCTV) 설치를 편차 문제로 꼬집었다. 특히 서천은 청양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대수가 훨씬 적고, 심지어 200만 이상 화소를 보유한 장비는 단 한 대도 없는 등 편차가 일정한 기준 없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사람의 도민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노동자 관리 방안 개선도 요구했는데.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일을 하고 있는데, 감염병 사태로 이들이 떠나면서 농민들은 ‘빌릴 수 있다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고 토로하는 형국이다.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체류 기간이 끝났지만 감염병 확산 예방 조치로 출국길이 막히면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체류 기간이 끝났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를 준다거나 하는 방식의 대책 마련을 도에 요구했는데, 최근 정부가 이들에게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더욱 고심하려 한다.”

-도내 대표적 쇠퇴 지역인 부여군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던데.

“부여군은 극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다. 발전은 정체되고 재정자립도 역시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해선 관광과 농업, 첨단산업 등 세 요소를 조화롭게 융합한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이 시급하다. 다



“ 도시가스 보급·CCTV 설치 등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에 온 힘
산업단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쇠퇴지역 경제활성화 마중물

행히 부여군 최초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승인되면서 기대감이 높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826억 원을 들여 부여군 흥산면 정동리·무정리 일원 44만여㎡ 부지에 13만평 규모로 건립된다. 이를 통해 1160억 원의 생산 유발과 405억 원의 부가가치, 3000여 명 고용 창출 등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까지 산단 내 980억 원을 들여 조성할 ‘부여 바이오 브릿지’와 연계한다면 일자리 확보는 물론 인구 유출 방지, 나아가 인구 유입을 통해 백제 고도인 부여군의 옛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여군에 설립되는 충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개해 달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축수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충남도 푸드플랜의 핵심 실행체계다. 도내에서 생산된 먹거리의 유통과 소비가 안전하게 이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서를 낸 6개 시군 후보지 중 부여군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23년까지 185억 원을 투입해 옛 남성초등학교 부지에 친환경유통센터, 직거래물류센터, 지역기공센터, 광역인증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부여군 농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농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추진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

의원시론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살려야



이영우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정부가 미래대비항만이라는 미명의로 보령신항 개발계획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제2차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의해 준설도 투기장을 천북면 학성리 일원에 조성하고 장래 항만시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라 한다.

보령신항의 선석(선박 접안장소)과 마리나시설, 크루즈 정박시설 조성 등 대규모 개발계획은 역대 대통령과 도지사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사

항이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공약인 전체 6개 신항만 중 부산신항, 평택(아산)항, 광양항, 포항영일만신항, 목포신외항 등 5개항은 완공됐으나, 보령신항만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IMF 사태 등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계획이 급격히 축소됐다. 1993년 충청권 신항만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당시 개발규모가 화물부두 20선석, 1998년 보령신항 실시설계 시에는 화물부두 11선석으로 줄었다. 이마저도 2001년 제2차 항만 기본계획에서는 화물부두 9선석, 2015년 보령신항 타당성 분석결과에서는 화물부두 2선석, 마리나 부두 300척으로

축소됐다. 연구 용역 타당성 결과에 의해 나타난 개발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준설도 투기장과 관리부두 건설 계획만을 제2차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사실상 보령신항 건설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본의원은 보령신항 계획을 살리기 위해서 보령신항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항만 전문가를 초청해 지난 6월 30일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에서도 양승조 도지사의 해양건도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는 보령시만의 문제가 아닌 220만 충남도민의 자존심이 걸

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보령시는 석탄합리화 조치 등으로 인구가 10만 6000여 명으로 급감하며, 10만 명 선을 사수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보령화력 1·2호기의 금년 12월 폐쇄에 따라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 것으로 예상된다. 10만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폐쇄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보령신항의 성공적 건설만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파 할 수 있다. 2선석 확보와 마리나 항만이 포함된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개발하고, 항만수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보령시 물동량만으론 항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인근 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공주·세종 등 배후지역의 항만 물동량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충남도와 보령시,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보령신항 건설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산업단지·기업과 연계한 대규모 화물선사유치와 배후단지·해양문화공간 조성, 배후 교통망 개발을 연계 추진해야 한다.

보령LNG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냉매를 이용한 냉동·냉장 물류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스마트·자동·지능·안전·친환경화 및 지역상생 등 최신 항만 트렌드를 반영한 신항만 개발계획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보령신항 조기 건설만이 인구 절벽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충남도와 보령시, 지역정치권 등 혼연일체가 돼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입법예고

도농교류 통해 균형발전 이룬다



충남도의회가 도농 교류촉진을 통해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체험 등을 충족시켜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축한다.

김기서 의원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도농교류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인증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전문 인력 선발·활용 등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도시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농어촌은 공산품·문화 시설을 제공받아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정원진흥실 시계획 수립·시행 ▲공동체 정원 조성 지원 ▲정원박람회 개최 ▲시민정원사 양성 등 정원문화 조성과 지원,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했으며, 도민이 협력 또는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도민들이 녹색복지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에 지방정원을 넘어 국가정원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토사 교육으로 충남 고유성 발굴



도의회가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향토사 교육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교육감은 학생들에게 향토사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향토사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한 향토사 교육이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농수산물품 해외진출 확대한다



도의회가 농수산물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아준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수산물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농수산물품 수출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수출기반 확대, 교육 및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품 수출전문단지 지정과 사후관리,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을 위한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학생 마음의 병, 함께 나눈다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천안8)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마음건강 상태 등을 살피는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후 학생 상담 등을 통해 학생 마음건강에 관한 교육과 상담,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이 이 어진다.

김 의원은 “마음건강 지원체계의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리랜서 권익 보호 강화한다



도의회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장기종합계획과 체계적 관리·지원 방안이 추진 된다.

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프리랜서 보호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위원회와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 제도적 근거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충남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이 보수나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환경·신재생 학교 만든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학교를 에너지자립형 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유지 관리 등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학교는 일상·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가동 중단된 설비는 복구계획을 통해 재가동을 위한 예산지원이 뒤따를 예정이다.

지역서점 회생 불씨 키운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도내 사업장(매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서점 인증 규정과 우선조달계약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비롯해 지역서점위원회 심의 항목에 ‘지역서점 인증’ 규정을 추가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 기관에 도서관을 추가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교 감염병 예방 역량 강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는 유병국 의원(천안10)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 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의 휴업·휴교·휴원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감염병으로 확진됐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대해 등교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노동자 사고 안전망 강화 나선다



도의회가 산업현장의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되면 도지사는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노동 단체 등과 산업재해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시활동과 범규위반 신고, 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 지도점검,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등을 수행하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한다



도의회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축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민 및 사업자의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 도민에 축산물 안전정보 정기적 또는 수시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취약지역 등의 축산물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독도교육’ 마련한다



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독도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맞서 영토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독도 교육 계획 수립과 관련 실태조사 추진,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보급 사업 등을 시행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독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토론회와 학술대회 등 독도 관련 연구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학교공동체 민주 문화 심는다



도의회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학교운영 원칙 ▲자치기구 종류 ▲교무회의 설치·구성 ▲예산 지원 등 학교공동체 자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기구를 구성, 학교운영에 교육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 의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보다 향상된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개발기금 적극 활용한다



도의회가 지역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 등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상 1.5% 복리로 고정된 지역개발채권 금리 기준을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자가 차량 변경 시 한시적으로 보유 차량이 2대가 되면서 매입 면제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정비했다.

생태계 보존·복원 힘 쓴다



오염되거나 훼손된 생물서식환경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생태 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정의·목적 ▲보조금 지원, 적용범위 ▲생태하천 복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역할·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훼손된 하천을 원래 유형에 맞게 복원함으로써 수생태계 보존과 수질 개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청정 충남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동선수 가혹행위 근절한다



도의회가 운동선수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포츠인 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인권헌장 제정과 선포 등을 담고 있다.

가혹행위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인권 교육과 신고, 상담 등을 수행하는 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규정했다.

황 의원은 “스포츠 인권과 교육적 가치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비대면 의회 운영

9월 임시회 전자회의 방식 도입

전자회의 시스템 활용 서면보고
 출석 인원 최소화·현장방문 취소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9월 1~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
 지난달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개·폐회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도정·교육행정질문이 예정된 2~3일 본회의 일정은 취소된다.
 단 도정과 교육행정의 점검을 위해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질문은 발언 대신 서면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각종 심사보고나 제안설명도 별도의 구두보고 없이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
 회의 출석 공무원 인원도 최소화한다. 본회의엔 도지사과 교육감 등 필수인원 7명만,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소관 실국원장, 과장, 주무팀장만 참석하게 된다.
 현장 방문은 모두 취소하고 실내 출입 시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 방역 절차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도의회 회의장 내 비밀차단용 투명 가림막 설치, 주기적 소독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의견 접수와 회의 생중계 등 비대면 소통 체계도 병행 추진한다.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6건과 예산안 2건, 실국별 출연계획 동의안 21건과 건의·결의안 7건까지 모두 56개 안건이 심의된다.



충남도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충남도의회가 서해안권 해양자원 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린다.
 도의회는 지난 1일 홍재표 의원(태안1)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324회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9명으로 구성될 특위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해양 폐기물·퇴적물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 생태계 복원과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또 석유화학단지과 산단 등 유해물질 저감 대책 제시, 해양자원 보호 및 환경개선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서해안은 천혜의 자원을 가진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자 생



홍재표 의원

태·관광 등 경제적 자원이 무궁무진한 곳”이라며 “환경해권 시대 동북아 물류 허브로 역할도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의회가 석탄화력발전 등 환경오염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만큼 해양생태계 보전과 환경안전 문제에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서해안의 해양과 수자원 보전, 대기질 개선 등 해양환경 복원과 더불어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발의 조례 미이행 지적



김명원 의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의된 조례에는 관련 사항 심의기구인 ‘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이 포함되는데, 유독 의원발의 조례에서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김명원 의원(아산1)은 서면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위원회 개선과 폐기·통합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례는 도민의 삶에 밀접한 법규이고 위원회는 민관 협치의 상징”이라며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작동되도록 실무부서에서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의병정신 기릴 기념관 건립하자”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홍성2)은 의병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의병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은 전국에서 항일 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다. 특히 홍주·예산·청양의 유생들이 만든 ‘홍주의병’은 한말 대규모 의병투쟁이자 주권회복을 위한 독립전쟁으로, 국난 극복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이 의원은 “충남은 항일의병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선열의 숨결이 살아있는 현장”이라며 “의병사를 대표 할 국가 기념관을 건립해 널리 알려 후손들이 의병정신을 이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5분발언

“전국 최초 ‘인성학기제’ 도입하자”



윤철상 의원

윤철상 의원(천안5)이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인성학기제’ 도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다.
 윤 의원이 교육부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현장 공동체 생활 공백에 따른 ‘인성교육’의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충남형 인성교육 지침서 개발·제작해 배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 자율학기제에 준하는 인성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낙후지역 공공의대 설립해야”



전인현 의원

전인현 의원(서천1)이 도내 서부권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정부의 공공의대 확대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서천군에는 대학교와 큰 규모 병원이 없어 응급환자는 전북 병원으로 가야만 한다”며 “장항 30만여 평의 국유지에 최소 비용으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의과대학 설립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한다”며 “충남도는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총체적인 인력풀을 총동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단성중학교, 남녀공학 전환해야”



김명수 의원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단성(單性)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명수 의원(서산2)은 “단성중학교만 있는 지역의 학생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학교 시기는 개인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때”라며 “남녀공학은 이성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고 성에 대한 잘못된 공상과 호기심 등을 완화시켜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개 시·군 관사 관리 체계화 제안



이공휘 의원

이공휘 의원(천안4)은 관사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관사는 모두 85개로, 연간 운영비는 총 1억 1300만여 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관사 운영은 지역마다 일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관사 개수나 종류에 따른 면적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별 공무원 수나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과밀화 개선 시급”



이명우 의원

이명우 의원(보령2)은 초등학교 과밀화 현상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령시내 대전동과 명천·동대동의 6개 초등학교 간 과밀화 현상이 악화되고 학교간 격차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밀화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미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수요 예측과 교원 수급, 공동통학구역 조성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 종합계획에 ‘농업수도’ 담아야”



방한일 의원

방한일 의원(예산1)은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5대 목표에 농업정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충남도 종합계획에 농업·농촌을 위한 발전목표가 빠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발전목표 지향점 구상안에 ‘농업수도 충남’을 추가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공익적 가치로 확장해야 한다”며 “농업인은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청년과 혁신 농업 등 사람중심의 농업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조정 시급”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태안2)은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구역을 용도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978년 10월 가로림면에서 안면도까지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개발행위 제한 등 규제로 개인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40여 곳 항·포구와 30여 곳의 해수욕장 주변지역 만이라도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지역이 아닌 여건에 맞는 일반용도 지역으로 고사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차 충남 종합계획 밑그림 보완해야”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청양)은 충남의 20년 뒤 미래상을 계획하는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대한 보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5개 시·군의 발전을 위한 제안 사업들이 현재 추진 중인 시장·군수 공약사업 또는 공모 신청 중인 단기 사업 위주 발전계획, 2단계 균형발전사업 등 기존 사업과 중복돼 있고, 심지어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별 여건을 감안한 별도의 신산업을 발굴·제시해야만 시·군별 고르게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